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연합부대 지휘관들을 만나시고 고무격려해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명령에 따라 지난 3월 23일부터 조선인민군 연합부대 지휘관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이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연합부대 지휘관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이 성과적으로 끝났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4월 1일 현지에서 그들을 만나시어 고무격려해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삼지연비행장에 도착하시자 행군대원들은 적들의 침략전쟁연습이 위험도수를 넘어선 첨예한 시기에 연합부대 지휘관들을 백두산으로 불러주시고 오늘은 자기들을 만나주시기 위하여 수천리 먼 길을 찾아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올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열광의 환호에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고 지휘관들과 담화를 나누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답사행군대원들이 항일혁명선열들의 발자취를 따라 행군하면서 투사들의 강毅한 신념과 의지를 체득하였으며 눈을 깔고 누워 자면서도 해방된 조국을 그려본 투사들의 열화같은 조국애와 혁명적락관주의를 가슴후덥게 새겨안았다는 지휘관들의 이야기를 만족하게 들어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연합부대 지휘관들이 답사행군을 통하여 백두의 혁명정신을 심장깊이 새겨안고 항일유격대의 지휘관들처럼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령을 웨치며 당이 준 혁명업무를 끝까지 수행하는 오중충형의 지휘성원이 될 철석의 신념을 더욱 굳게 다진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삼지연대기념비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앞 교양마당에서 진행된 조선인민군 연합부대 지휘관들의 결의대회에 참석하시었다.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갈것을 맹세하는 결의대회에는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연합부대 지휘관들이 참가하였다.

결의대회는 노래 《혁명무력은



원수님 령도만 받든다》의 주악으로 시작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결의대회참가자들앞에서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에 참가한 연합부대 지휘관들을 혁명의 성산 백두산이 지척에 바라보이는 유서깊은 위대한 장군님의 고향군에서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쁘다고 하시면서 답사행군을 성과적으로 끝마쳤다는 보고를 받고 동무들이 보고싶어 한 달음에 찾아왔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답사행군에 참가한 연합부대 지휘관들의 기세충천한 모습을 매일 사진으로 보며 동무들과 함께 답사행군길을 걷는 심정으로 심장을 불태웠다고 하시면서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의 길을 곳곳이 이어가며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빛나게 관찰할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었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연합부대 지휘관들이 항일혁명투사들처럼 강행군도 하고 야외에서 숙식도 하면서 백두산의 눈보라맛을 보았을것이라고, 그 과정에 항일대전을 승리로 이끄시기 위해 풍찬로숙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이 새겨안았을뿐 아니라 우리 혁명의 시원, 우리 혁명의 전통이 어떻게 마련되었는가를 더 잘 알게 되었을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군에 혁명전통교양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조선혁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하여 조선인민군 연합부대 지휘관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을 조직하였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최근 국토량단과 민족분렬의 력사를 끝장내고 우리 민족끼리의 단합된 힘으로 북남관계 개선의 활로를 열어나갈 승고한 념원으로 부터 조국통일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중대제안을 발표하고 현실적인 조치들을 련속 취하였지만 지금 나라에 조성된 정세는 매우 엄중하다고 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미국과 적대세력들은 우리의 아량과 선의를 무시하고 우리 공화국을 정치적으로 말살하고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며 군사적으로 압살하기 위한 책동을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고 있다고 지적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대로 방임할 수 없는 엄중한 사에는 우리에게 대한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흥심이 변하지 않았으며 변할수도 없다는것, 오직 총대로 최

후승리를 이룩해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것이며 철저히 짓부셔버릴것이라고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연합부대 지휘관들에 대한 당의 믿음과 기대는 대단히 크다고 하시면서 백두의 칼바람을 맞으며 역세게 버려진 혁명의 총대, 계급의 총대를 더욱 튼튼히 틀어쥐고 미제와 총결산하기 위한 투쟁을 드세차게 벌려야 한다고 지시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인민군대앞에는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총대로 끝까지 완성하여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임무가 나사고있다고 하시면서 전군의 싸움준비완성과 전투력강화에서 지침으로 되는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연설을 마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격정에 겨워 《만세!》를 부르면서 솟구치는 눈물을 견잡지 못하였다.

결의대회에서는 조선인민군 제 507군부대 부대장 전용학, 제 438군부대 정치위원 홍철일, 제 858군부대 부대장 리일찬, 제 230군부대 정치위원 박영관이 결의토론을 하였다.

대회에서는 전군의 장병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었다.

결의대회는 노래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의 주악으로 끝났다.

대회가 끝나자 또다시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터치는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가 민족의 성산 백두산의 하늘가로 힘차게 울려 퍼졌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이날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연합부대 지휘관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연합부대의 지휘관들이 답사행군길에서 다진 조선혁명의 념이며 생명인 백두의 혁명정신을 천백배로 발휘하여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의 혁명위업을 총대로 받들어가는데서 자기들앞에 맡겨진 무겁고도 영예로운 임무를 다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인민군장병들과 함께 량강도에 대한 순회공연을 앞둔 모란봉악단의 공연을 관람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인민군장병들과 함께 량강도에 대한 순회공연을 앞둔 모란봉악단의 공연을 관람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관람석에 나오시자 전체 관람자들은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올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소개자는 모란봉악단이 량강도에서 공연을 진행할데 대한 과업을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공화국을 압살해보려는 미제와 적대세력들의 오만무례한 책동을 짓몽개버리시며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지켜주시는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순회공연을 앞둔 자기들의 공연을 보아주시기 위해 나오시었다고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혁명의 시원이 열린 백두산아래 첫동네에서부터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게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모란봉악단이 량강도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량강도에 장엄한 음악포성을 울림으로써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밑에 찬란히 개화만발하는 김정은시대 음악에

술의 위력을 남김없이 파시할 불타는 결의를 피력하였다.

공연무대에는 녀성독창 《희망넘친 나의 조국아》, 《대흥단은 살기 좋은 고장입니다》, 녀성2중창 《흥하는 내 나라》, 녀성독창과 방창 《뜨거운 정》, 녀성2중창과 방창 《우리 아버지》, 경음악 《백두의 말발굽소리》, 녀성독창과 방창 《자나깨나 원수님 생각》, 녀성2중창과 방창 《우리 원수님》, 녀성3중창 《하늘아래 첫집》, 바이올린독주와 경음악 《매혹과 흥모》, 녀성3중창 《대흥단 삼천리》, 녀성2중창과 방창 《빛나

라 정일봉》, 녀성독창 《내 삶의 보금자리》, 녀성중창 《잠수함해병의 노래》, 녀성4중창 《그이 없인 못살아》, 녀성중창 《인민의 환희》,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 《인민은 일편단심》의 종목들이 울렸다.

젊음과 활력에 넘친 성악, 독창적이며 열정적인 기악, 세련되고 우아한 안산블, 시대정신이 굽이치는 아름다운 선율로 황홀한 예술의 세계를 펼쳐가는 모란봉악단의 공연은 관람자들의 대접찬을 받았다.

공연이 끝나자 관람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또다시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리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관람자들과 출연자들에게 손을 저어주시며 공연성과를 축하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모란봉악단에 대한 인민들의 사랑과 기대는 날로 커가고있다고 하시면서 량강도에 대한 순회공연을 통하여 당의 의도를 앞장에서 받들어가는 제일나팔수로서의 자랑스러운 면모와 위력을 남김없이 파시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었다.

본사기자

태양절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 우리 겨레에게 있어서 태양절은 가장 경사스러운 민족 최대의 명절이다.

어버이수령님을 모시어 자주와 존엄으로 빛나는 공화국이 있고 후손만대의 행복과 번영을 담보하는 인민의 세상이 펼쳐질 수 있었다. 수령님은 곧 민족의 운명이었고 하늘이시었다.

세기가 바뀌어 10여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날이 가고 해가 바뀔 때 따라 더욱 그리워지고 안기고 싶은 것이 김일성주석의 자애로운 품이다. 조국과 민족 앞에, 인류 앞에 그이 쌓으신 업적은 저 하늘에 닿을 크나큰 업적이고 영구불멸할 업적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생축원의 노래를 심장으로 부른다.

그이의 업적중의 업적은 자주시대를 열어주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자주와 빛으로 민족과 인류의 운명개척의 밝은 앞길을 열어주시는 것이다.

자주, 이 말 속에 어버이수령님의 고귀한 생애와 업적이 함축되어 있다.

인류역사의 갈피에는 위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어버이수령님처럼 주체의 광휘로운 빛으로 자주를 새기며 개척하시고 공화국을 이끄시는 전기간 탁월한 자주정치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시고 높이 펼쳐주신 위인은 일찍이 없었다.

자주는 어버이수령님께서 한평생 간직하고 구원해오신 정치신조였고 투쟁방식이었으며 실천이었다. 일찍이 10대의 시절에 자주적운명개척의 지도리념인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수령님께서 한평생 언제나 자주의 가치 높이를 민족의 운명 존엄을 수호

자주로 빛나는 위대한 한생

하고 부강조국을 건설하기 위한 애국위업을 현명하게 이끄셨다.

지난 세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벌리신 피어린 항일무장투쟁은 외세에게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고 겨레의 운명을 구원하기 위한 성스러운 애국투쟁이었다.

수령님께서 나라를 찾기 위한 투쟁에 나서신 첫 시기에 벌써 비범한 예지와 통찰력으로 자주성은 인민대중의 생명,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며 그것을 실현하자면 사대와 교조를 배격하고 혁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는 진리를 밝히셨다.

고전의 신념과 드높이 하는 사람들이 인민을 떠나 기성리론의 명제에나 매달리고 있을 때 인민대중속에 깊이 들어가서 주체의 진리를 새롭게 밝혀내시어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승리로 이끄신 어버이수령님이었다.

그이께서는 청소한 공화국을 요망기에 암살하려고 미국과 제국주의련합세력이 덤벼들었을 때 다른 나라의 싸움방식이 아니라 조선식의 새로운 전법을 제시하시고 군대와 인민을 현명하게 이끄시어 위대한 전승의 신화를 창조하셨다.

주체를 필생의 좌표로 삼으시고 철의 신념과 드높이 하는 배짱으로 자주적대비를 확고히 견지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 계시어 공화국은 미래의 계속되는 군사적도발을 물리치고 조국의 존엄과 안전을 굳건히 지켜낼 수 있었다.



집무실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

지난 세기 1960년대 말 미국은 공화국의 령해권이 침입하여 정탐행위를 감행하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가 나포되자 그것을 구실로 삼아 이 땅에 또다시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려고 책

동하였다. 당시 미국은 저들의 범죄행위를 시인하고 공화국에 사회화대선 도적이 도적이야 하는 식으로 《군사적보복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공갈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미국의 광

란적인 새 전쟁도발책동에 대처하여 우리는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결코 전쟁을 두려워 하지 않는다는,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는 미제국주의자들의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

을 이겨낼 것이라고 엄숙히 천명하시었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존엄을 더없이 귀중히 여기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단호한 립장과 그에 호응하여 펼쳐나선 군대와 인민의 멸적의 기세앞에 미국은 드디어 무릎을 꿇고 사죄문에 서명하지 않으면 안되

었다. 미국이 《EC-121》대형간첩비행기 사건, 판문점사건을 비롯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암살하려고 미처 날뛰었지만 그때마다 쓰디쓴 참패를 당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은 바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데 대한 현명한 전략적로선을 제시하시고 나라의 방위력을 철저히 다져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자주, 자위의 로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주체조선의 자립적민족경제건설력사도 어버이수령님의 자주적립장을 잘 말해주고 있다. 우리에게 다른 나라 옷이 아니라 오직 조선옷이 맞다고 하시며 새 조국건설도 조선식의 정당한 로선과 방식대로 풀어나가신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공화국은 1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공업화도 완성하고 세상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주,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일떠설 수 있었다.

전진미담의 길을 헤치시며 이 땅위에 주체의 강국을 세우신 수령님의 업적을 칭송하여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전 지국장은 《김일성주석의 정치리념을

본사기자 주일봉

주체82(1993)년 4월 9일. 온 나라 군대와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절대적인 지지에 따라 위대한

김정일장군을 조선인민군인민공화국 국무원회의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한 그때로부터 어느덧 21돌의 년월이 새겨졌다.

지나온 스물한해는 령상이 있어야 강군이 있고 나라의 안녕과 민족의 존엄이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을 실증해준 뜻깊은 추억의 날과 날이다.

1994년에 뜻밖에도 민족 최대의 국장을 당하고 온 나라에 퍼는 물의 곡성이 터질 때 제국주의자들은 패배를 부르며 반공화국 암살의 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내며 사면팔방으로 달려들었다. 앞치면도 없는 격으로 레닌에 없는 자연재해가 련속 들이닥쳐 농업 부분이 큰 피해를 당하고 인민들은 고난의 행군을 하지 않으면 안되

었다.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 군력강화의 길을 택하셨다. 아이들이 설맞이공연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학생소년군으로가 아니

선군의 오직 한길로

라 인민군인들이 지켜온 다박솔소리를 찾으니 그날로부터 최전연 고지들과 최전방 초소들에 선군장정의 길은 쉬임없이 이어졌다.

사시장철 곳은날 마른날 가림없이,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이어진 초강도강행군길에서 그이의 야전차는 언제나 멈추지 않았고 속도를 늦춘적도 없었다.

당시 장군님의 심중에 무엇이 고동치고있었는지 누구도 몰랐다. 그것은 선군으로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지키고 강성국가를 일떠세우실 크나큰 용지였다.

그 누가 내마를 몰라줘도 몰라준대도 희망안고 이 길을 가고자라하는 노래를 조용히 부르며 또 부르시며 장군님 녀고님으신 철령이며 오르신 오성산의 아찔이절한 칼바람길은 선군의 만단사연을 지금도 눈물겹게 전해 주고 있다.

장군님께서 조국과 인민을 위

여 조선반도에는 일촉즉발의 핵전쟁위험이 조성되고 있다.

호전광들은 공화국북반부 해안지대로의 상륙을 위한 교두보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상륙작전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해 상륙돌격장갑차, 공기방사정 등에 의한 상륙훈련을 맹렬히 벌리면서 실지 전쟁을 방불케 하는 소동을 벌리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선전지령의 지략과 담대한 배짱, 결출한 령도력으로 적들의 무모한 침략전쟁책동을 걸음마다 단호히 짓부시며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고 강성국가건설위업을 승리로 이끌고 계신다.

그이께서는 지난 3월 한달 동안에만도 세차례나 인민군인들의 사격경기를 지도해주시고 있으며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소집하시고 인민군대의 싸움준비완성과 나라의 방위력을 튼튼히 다지기 위한 강령적인 지침들을 밝혀주셨다. 그리고 며칠전에는 백두산 지구 혁명전진지대사령관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연합부대 지휘관들도 만나시고 고무격려해주

셨다. 또 한반도의 위대한 령장을 모시어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발악적책동속에서도 공화국은 조금도 끄떡하지 않으며 반미대결전과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는 확고히 담보되고있는 것이다.

김충직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선군혁명실록을 가슴깊이 새겨가는 근로자들

며칠전 서해상에서 남조선군부 강대들에게 랍치되었다가 돌아온 공화국의 선원들이 국내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3월 27일 오후 2시경 조계 잠이를 위해 통연군 구미리에서 배를 타고 출항한 웅진산산업소선장 립춘수, 기관장 김철, 선원 김태원은 항해중 기관고장으로 항로를 잃게 되었다. 바로 이때 남조선해군 2함대소속 폐속정전대가 그들의 어선을 나포하고 선원들에게 무차별적인 폭행과 《구순》을 강요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군부 강대들의 온갖 공갈과 회유를 물리치고 끝내 28일 새벽 2시경 조국의 품에 안길 수 있었다.

하더라도 이들이 어떻게 되어 그들이 조국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는가.

기자회견장에서 선장 립춘수는 이렇게 말했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우리는 조국에서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 어떤 조치들을 취하였는지 전혀 모르고있었습니다.

돌아와서야 조국의 강력한 조치에 의해 피로강대무리들이 우

리를 어찌지 못하고 서둘러 돌려보내지 않으면 안되었다는 것을 알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셨 습니다.》

이번에 그들이 랍치되었다가 구사일생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저절로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기자회견에서 선원들이 격분을 터진것처럼 남조선 해군강대들은 그들을 쇄동으로

라든가 기어이 찾아오고 풍랑을 만나 내가 가라앉는 위기일박의 순간에도 비행기를 띄워 끝끝내 구원해주는 어머니의 품이다.

그러한 이야기들은 공화국에 수없이 많다.

얼음장에 실려 바다에 떠내려 갔다 구원된 어로공녀, 군사입부수행도중 사나운 풍랑으로 적구에 억류되었다 돌아온 두 병사, 판문점본리선을 넘어 조국의 품에 안긴 63명의 비전향장기수들의 이야기...

남조선에서 34년간이나 옥중고초를 겪고 감옥문을 나와서도 통

일선념과 의지를 굽히지 않았던 비전향장기수 리인모로인도 전사들에 대한 절세위인의 한없이 뜨거운 사랑과 의리심에 의하여 조국에 돌아오게 되었다.

오늘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에게 있어서 꿈에도 안겨사는 어머니조국의 품은 바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자애로운 사랑의 품이다. 천만자식 한사람 한 사람의 운명을 일일이 돌봐주고 그들의 삶과 행복을 끝까지 지켜주고 빛내주는 이런 위대한 사랑의 품이 있어 평범한 어로공들이 사지판에 놓였다가도 구원되어 돌아올 수 있었고 그 어떤 원수도 감히 그들의 운명을 칼질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하기에 립춘수, 김철, 김태원은 기자회견장에서 자기들의 심정을 담아 이렇게 웅했다. 《홀로 망망대해에 떨어지고 원수들의 소굴에 갇힌다 해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만 계시면 무서울 것이 없으며 반드시 이긴다는 철의 진리를 체험을 통하여 심장깊이 새겨안았습니다.》

본사기자 김강철

숭고한 인민사랑의 화폭을 펼치며

주체44(1955)년 여름 어느날, 공부가 끝나고 학교에서 돌아오다가 뜻밖에도 위대한 김일성주석을 만나뵈고 소년단정례를 깎듯이 드리는 창성군 아이들속에는 신발은 못 신은 한 소년

이 있었다.

소년은 수령님께서 먼지물은 자기의 발을 내려다보시며 안색을 호리호리 부끄러워 뒤로 물러서고 하였다.

그런데 위대한 수령님께서 소년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 물으셨다.

《나의 집에는 누가 계시느냐?》 《할머니하고 어머니가 계시

니다. ...그리고 동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 《아버지가 안 계시느냐?》 《아버지는 전쟁때 전사했습

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소년은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알리려고 집으로 달려박질을 쳤다. 집까지 걸반길을 왔을 때

문득 위에서 경적소리가 울리니 위대한 수령님께서 라신 차가 곁에 와서 멎었다.

수령님께서 차문을 여시고 어서 차에 올라타라고 손을 내미셨다.

소년은 자기의 발을 내려다보며 어땀겨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제 신발을 사신다면 아무렇지도 않

수령님과 밭벗은 소년

이 없이 그 소년을 꼭 껴안아 주시었다. 그러시다가 수원들에게 《이거 보오. 이애에게 신발 하나 신기지 못했는데 그래도 이애는 나를 보고 인사를 하오》 라고 하시며 안색을 더욱 호리

수령님께서 소년의 집이 어디며 살림행편은 어떤가를 세세히 알아보시고나서 아이들과 헤어지시면서 좀 있다가 너희들의 집에 들려보겠다고 말씀하시었다.

소년은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알리려고 집으로 달려박질을 쳤다. 집까지 걸반길을 왔을 때 문득 위에서 경적소리가 울리니 위대한 수령님께서 라신 차가 곁에 와서 멎었다.

수령님께서 차문을 여시고 어서 차에 올라타라고 손을 내미셨다.

소년은 자기의 발을 내려다보며 어땀겨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제 신발을 사신다면 아무렇지도 않

본사기자

고 하시며 그를 차에 태우시었다. 그러시고는 그의 발을 내려다보시며 《들길에 밭이 아프지. 밭이 심하면 큰일이야. 학교에도 못 가고...》 라고 하시었다.

그 말씀에 소년은 눈물이 불쑥 솟아나 고개를 돌리고 말았다.

어느덧 차가 소년의 집에 이르자 위대한 수령님께서 할머니, 어머니와 인사를 나누신 후 부안에서 그를 3형제를 데리고 가서 신발을 사신기라고 말씀하시었다.

피그나 시간이 지나 그들이 신발을 사시고 돌아오자 그때까지도 마당에 계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손수 소년의 신발 앞뒤를 꼭꼭 눌러보시고야 마음을 놓으시었다.

소년은 품이 메어 《신발을 사주셔서, 공부 잘... 공부 잘하겠습니다.》 라고 겨우 말씀을 물고말았다.

본사기자

돌아온 아들들

구라하며 남쪽으로 강제구순시키려고 비렬하게 획책하였다. 인문도덕도, 민족에도 없는 야수같은 강대들에게 잡혀있던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고마운 조국의 사랑의 구원조치에 의해

었다. 어선이 랍치된 순간부터 공화국에서 남조선당국에 평화적인 우리 어선을 즉시 돌려보낼 것을 촉구하면서 만약 어선귀속이 늦어지는 경우 예상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게 될것이라는 긴급경고통지문을 보냈다. 이에 바빠맞은 강대무리들은 구차한 거짓말과 변명을 늘어놓으면

라든가 기어이 찾아오고 풍랑을 만나 내가 가라앉는 위기일박의 순간에도 비행기를 띄워 끝끝내 구원해주는 어머니의 품이다.

그러한 이야기들은 공화국에 수없이 많다.

얼음장에 실려 바다에 떠내려 갔다 구원된 어로공녀, 군사입부수행도중 사나운 풍랑으로 적구에 억류되었다 돌아온 두 병사, 판문점본리선을 넘어 조국의 품에 안긴 63명의 비전향장기수들의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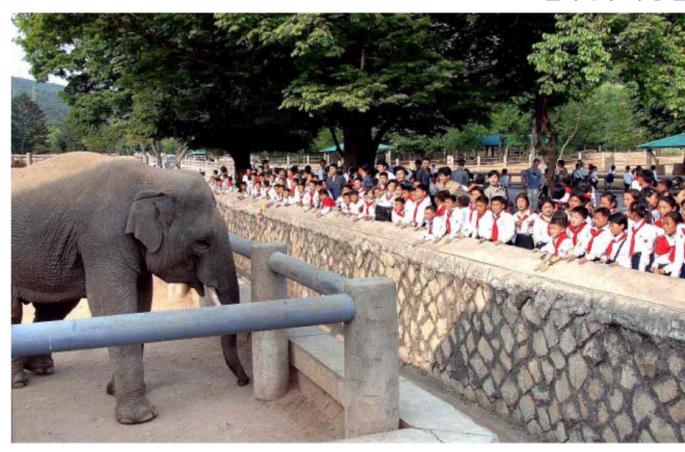
남조선에서 34년간이나 옥중고초를 겪고 감옥문을 나와서도 통

일선념과 의지를 굽히지 않았던 비전향장기수 리인모로인도 전사들에 대한 절세위인의 한없이 뜨거운 사랑과 의리심에 의하여 조국에 돌아오게 되었다.

오늘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에게 있어서 꿈에도 안겨사는 어머니조국의 품은 바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자애로운 사랑의 품이다. 천만자식 한사람 한 사람의 운명을 일일이 돌봐주고 그들의 삶과 행복을 끝까지 지켜주고 빛내주는 이런 위대한 사랑의 품이 있어 평범한 어로공들이 사지판에 놓였다가도 구원되어 돌아올 수 있었고 그 어떤 원수도 감히 그들의 운명을 칼질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하기에 립춘수, 김철, 김태원은 기자회견장에서 자기들의 심정을 담아 이렇게 웅했다. 《홀로 망망대해에 떨어지고 원수들의 소굴에 갇힌다 해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만 계시면 무서울 것이 없으며 반드시 이긴다는 철의 진리를 체험을 통하여 심장깊이 새겨안았습니다.》

본사기자 김강철



본사기자 리경월

민족의 대단결로 자주통일의 활로를 열자

오는 6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자주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발표 21돐이 되는 날이다.

1990년대 전반기에 들어 서면서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연합세력은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공화국을 어떻게 하나 압살하기 위해 남조선과 그 주변에 방대한 무력을 집결시키고 증식했던 《팀 스페리트》합동군사연습을 재개해나서는 등으로 민족의 자주권과 공화국의 최고리익을 엄중히 위협해나섰다.

조성된 정세는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미국에 의해 민족의 머리에 드리운 핵전쟁의 위험을 가시고 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며 자주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갈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비밀한 예지로 조성된 정세의 요구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주제82(1993)년 4월 6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회의에서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미제의 핵전쟁도발책동을 짓부시고 자주통일의 앞길을

열어나가기 위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발표하시였다.

우리 겨레에게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시기 위해 근 반세기동안 온갖 로고를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표하신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은 수령님의 민족대단결사상과 그 실천적경험의 총화이며 불멸의 민족대단결총서이다. 이 강령에는 민족대단결의 총적목표와 리념적기초, 단결의 원칙과 방도가 뚜렷이 밝혀져 있다.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그 공명정대성으로 하여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조국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접수할수 있는 남측단합원장으로 되고있다.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이 발표된 후 지난 기간 우리 겨레는 조국통일의 주제적력량을 확대강화하고 통일행사들에서 북, 남, 해외 3자련대를 이룩하였으며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운동으로 확대강화하는것과 같은 획기적인 성과들을 달성하였다.

현시기 안팎의 반동일세

력의 반공화국대결책동으로 말미암아 북남관계는 엄중한 도전에 부딪치고있다. 미국은 대규모적인 북침책정연습소동으로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바라는 우리 겨레의 머리에 열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고있다. 그런가하면 내외분열주의세력은 그 무는 《핵문제》나, 《인권문제》나 하며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에 혈안이 되어 날뛰고있다.

내외반동일호전세력의 대결책동, 전쟁책동으로 말미암아 전쟁위험이 날로 높아가는 오늘의 현실은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높이 온 민족이 더욱 굳게 단합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민족자주는 민족문제해결의 핵이며 조국통일운동의 생명선이다.

조선은 분열시킨 외세가 결코 우리 민족에게 조국통일을 선사해줄수 없다. 우리나라의 통일을 달가와하지 않는 외세에게는 오히려 조선의 분열을 통하여 어부지리를 얻으려는 흥심만이 있다. 외세의존을 추구하면서 북남관계의 《개선》이요, 《신뢰》요 하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민족자주의식으로 튼튼히 무장한 우리 민족의 단결된 투쟁은 안팎의 분열주의세력의 반동일책동을 짓부시는 결정적힘이다. 우리 겨레는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투철한 주제적관점과 림장을 확고히 견지하며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하고 통일을 방해해나서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책동을 철저히 짓부서버려야 한다. 이와 함께 외세와 야합한 반동일세력들의 매국배주행위를 추호도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미국과 남조선호전파들은 조선반도와 주변에 핵전쟁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 북침책정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리고있으며 이로 하여 사소한 우발적인 군사적충돌도 전면전쟁으로 번질수 있는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이제 이 땅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나면 그것은 엄청난 핵재난을 가져오게 될것이며 미국도 결코 무사하지 못할것이다.

전체 조선민족은 내외호전세력들의 대결과 전쟁책동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고 단호히 저지관탄시켜야 한다.

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남조선에서 《정권》이 어떻게 바뀌든 변하지 말아야 할 민족공동의 통일기치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다. 바로 여기에 민족의 자주도 있고 나라의 평화도 있으며 조국통일도 있다.

온 겨레는 북남공동선언들을 귀중히 여기며 그 고수리행을 위한 전진적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켜야 한다. 북남공동선언들을 부정말살하려는 반동일세력의 책동에 된라격을 안겨야 한다. 북남공동선언들의 고수리행을 위한 통일에국활동을 장려하며 적극 지지성원하여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참다운 애국의 기치,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굳게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거족적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으로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야 할것이다.

동족대결을 격화시키는 랍치행위

오늘 북남관계발전을 가로막는 남조선의 반동일대결세력중에서 제일 못되게 높아대고 있는것은 다름아닌 군부이다.

얼마전 감행된 공화국의 평화적선과 선원들에 대한 친인공노할 해적행위가 그것을 여실히 실증해주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 3월 27일 짙은 안개를 리용하여 조선선해의 해상군사분견을 불법침입한 남조선해군 2함대 소속 강대들은 기관고장으로 닻을 내리고 방향을 판정하고있던 용진호를 수습여발의 총탄을 마구 쏘아대어 선을 포위하고는 선원들에게 쇠몽둥이를 휘두르고 쇠갈기를 마구 집어던지면서 배를 랍치하기 위해 발광하였다. 그리고는 실신상태에 빠진 선원들을 쇠고랑으로 결박하여 백령도로 끌어들였다.

더우기 참을수 없는것은 남조선해군강대들의

선원들에 대한 비열하고도 강압적인 《귀순공작》행동이다.

바다에서 재난당한 사람들을 구조하고 방조를 주어 돌려보내는것은 초보적인 인도주의원칙이고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관례이다.

그러나 남조선해군강대들은 조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공화국선원들에게 총구까지 겨누고 위협하고 서로 격리시켜 구라하고 위협공갈을 가하며 고향과 부모들, 공화국에 대한 배반을 강요하였다.

비밀성과 간악성, 비인간성이 있어서 류체를 찾아볼수 없는 남조선군부악당들의 《귀순》책동이야말로 극악한 반인륜적, 반인권적인 범죄행위로서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조선군부는 철면피하게도 《유감스러운 행위》라느니, 《인도적으로 송환했다.》느니 뭐니 하면서 저들의 범죄행위를 정당화해나서고 있다.

하지만 남조선해군악

당들의 강대행위의 후과로 선원들은 아직까지도 피멍과 머리저림증을 비롯한 육체적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실들은 이번 남조선해군의 공화국어선과 어민들에 대한 야만적랍치당당이 북남관계를 극단으로 몰아가기 위한 불순한 목적밑에 감행된 고의적이고도 계획적인 범죄책동이라는것을 말해주고있다.

공족에 대한 남조선군부악당들의 구시대적인 대결의식과 적대행위를 근절하지 않고서는 언제가도 북남관계가 개선될수 없으며 조선반도의 평화도 이룩할수 없다.

지금 공화국 군대와 인민은 남조선군부의 행동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다.

남조선군부세력은 시대의 흐름에 배치되게 공화국선원들에 대한 랍치행위와 같은 불한당정을 계속하다가가는 돌이킬수 없는 후과가 차례따는것을 명심해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김철호

누워서 침뱉어야 제 얼굴에 떨어진다

지난 3월 25일부터 29일까지 남조선의 집권자가 도이칠란트를 행각하였다. 행각기간 그는 여기저기 돌아치며 도이칠란드통일에 대해 《배울것》이 많다느니, 《모범》을 따르고싶다느니 하며 체면도 없이 높아졌는가 하면 어느 한 대학에서 《연설》을 한담시고 그 무슨 《통일구상》이니 뭐니 하고 떠들었다. 더욱 어처구니없는것은 그가 《경제난》이니, 《배고픔》이니 하고 북의 현실을 외곡하며 입신부와 아이들에 대해 그 무슨 《도움》이나 줄듯이 생색을 낸것이다. 입 해론 아나네 주책머리없이 여기저기 싸다니며 주절때는 소리에 들을것이란 취쁨도 없었고 박근혜가 해외에서 늘어놓은 말들은 혐오감을 자아내게 하고있다. 한마디로 박근혜가 도이칠란드행각시 보인 추한 행실은 그야말로 촌아나네의 꼴볼건이다.

우선 그의 이번 행각은 뼈속까지 사대로 물젖은 체질적속성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우리 나라와 도이칠란드는 지구의 동쪽과 서쪽에 있는 나라들이다. 나라가 분열된 경위도, 처한 현실도 같지 않다. 그런 도이칠란드의 통일이 조선반도통일의 교본이 될수 없다는것은 자명하다.

오늘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누

구나 일일천추 바라는것은 조국통일이다. 나라의 통일은 북과 남이 합의한 조국통일3대원칙과 6.15북남공동선언, 10.4선언을 존중하고 철저히 리행해나갈 때 실현된다. 남조선의 집권자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이러한 진리를 외면하고 구태여 서쪽의 머나먼 나라에까지 찾아가 그 무엇을 《배울것》이니, 《모범》을 따르고싶다느니 하고 떠들었으니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하나의 강도, 하나의 민족으로 살아온 북과 남, 지금은 비록 외세에 의해 돌로 갈라졌지만 앞으로 반드시 하나로 되어 함께 살게 될 북과 남이 통일을 앞당기자고 합의한 모든것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이 그 누구의 《모범》을 운운한것은 제 민족이 한것은 모두 나쁘고 남이 한것은 무조건 좋고 그대로 해야 한다는 사대의 극치이며 엄중하게는 온 겨레가 규탄하는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을 고집하는 반동일적망동이 아닐수 없다.

그가 도이칠란드의 동부지역들을 돌아치며 이 지역주민들의 자유에 대한 열망이 통일의 원동력이였다니 뭐니 하고 지껄어냈건은 그가 말하는 통일이 어떤 통일인가를 여실히 드러내고있다.

남조선집권자가 《경제난》이니,

《배고픔》이니 뭐니 하며 북을 마구 비방한것 역시 온 겨레의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밖에 나가 동족을 터무니없이 깎아내리는것이 그렇게도 속이 시원한가. 박근혜의 망언은 동족을 떨어놓고 적대시하는 그의 대결근성이 밖에 나가서도 그대로 표현된것이다.

그러나 비방을 해도 사실과 맞게 해야 한다. 그의 말은 너무 터무니없는것이다. 지금 공화국은 비약하며 솟구치고있다. 건설의 새로 온 전성기가 펼쳐져 한달, 한해사이에만도 몰라보게 달라지고 더욱 현대적으로 아름답게 변모되고있는 것이 수도 평양이고 각 지방의 도시들이다. 평양을 찾는 해외동포들과 외국인들도 여기가 정말 몇년 전에 찾아왔던 도시가 맞다고 놀라움과 찬사를 표시하고있는것이 현실이다.

그때 남조선집권자가 공화국의 이러한 현실을 조금이라도 모른단 말인가. 진짜 모르고 말했다면 그의 무지몽매함을 드러내놓고 알면서도 그렇게 말했다면 더우기 나쁜 너자라고 해야 할것이다.

남조선집권자가 북의 입신부와 아이들에 대해 이러저러쿵 하는것도 또한 격에 맞지 않는 소리이다. 그가 2002년 평양을 방문했을 때 장광유치원과 평양산원을 돌아보면서 아

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우고 녀성들을 존중하는 공화국의 제도에 대해 머리를 끄떡이며 인정했건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아닌 보살하며 입신부와 아이들을 생각이나 나누는것처럼 높아대건은 가스름기 그지없다.

지금 너자라고 해서 직장에서 쫓겨나고 남자들보다 적은 돈을 받으며 결혼하고 임신하면 그날이 곧 《해고통지장》을 받는 날이 되고 있는 암울한 사회는 남조선이다.

박근혜가 입신부와 아이들에 대한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남의 일에 기우거리기보다는 제 집일이나 바로하는것이 좋을것이다.

세상에 모르면서 아는체 하는것 이상 창피한 노릇은 없다.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세상물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정보원이 조작한 모략정보를 그대로 외워대는 박근혜야말로 2MB라는 별명이 붙은 리명박이나 무식하기로 소문난 부부와 한치도 다를바 없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들에 나가서도 샌다고 해외에까지 나가 반공화국대결강기를 부린 남조선집권자는 이제 세살 난 아이처럼 재잘거리지 말고 인생말년을 앞둔 나이에 맞게 말과 행동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

리어금

김용철

남조선의 박근혜가 해외행각기간 도이칠란드에서 동포들의 격노한 항의에 부닥쳐 세계면전에서 망신당하게 하였다.

3월 26일 제 도이칠란드동포협력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유림지역 본부와 《한민족유림연대》를 비롯한 유림지역 동포단체원들은 도이칠란드의 베를린에서 남조선집권자의 행각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지었다.

집회참가자들은 민주를 말살하고 반공화국대결책동에 광분하고있는 남조선당국자에 대한 격노한 심정을 터쳤다.

집회에서는 집권후 지금까지 잘못된 정책을 추진한 죄로 《박근혜》에게 큰장을 치는 공언장면이 펼쳐져 참가자들의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박근혜가 독재자의 딸로서 민주와 인권이 왜 중요한지조차 모르고있으며 쌍룡자동차로 중원들의 죽음에 대해 외면하면서 남조선노동자들의 인권을 유린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그들은 박근혜가 제3차 《핵안전수뇌자회의》라는

데서 북의 핵이 마치 가장 큰 위협으로 되는듯이 과학적근거도 없는 무지한 망발을 채쳐며 세계면전에서 망신당하게 하였다.

3월 26일 제 도이칠란드동포협력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유림지역 본부와 《한민족유림연대》를 비롯한 유림지역 동포단체원들은 도이칠란드의 베를린에서 남조선집권자의 행각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지었다.

집회참가자들은 민주를 말살하고 반공화국대결책동에 광분하고있는 남조선당국자에 대한 격노한 심정을 터쳤다.

집회에서는 집권후 지금까지 잘못된 정책을 추진한 죄로 《박근혜》에게 큰장을 치는 공언장면이 펼쳐져 참가자들의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박근혜가 독재자의 딸로서 민주와 인권이 왜 중요한지조차 모르고있으며 쌍룡자동차로 중원들의 죽음에 대해 외면하면서 남조선노동자들의 인권을 유린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그들은 박근혜가 제3차 《핵안전수뇌자회의》라는

들은 《불법대선, 불법대통령》, 《근혜야 가라》는 글이 쓰여진 프랑카드를 들고 시위행진을 벌였다.

시위자들은 도이칠란드행각중에 있는 남조선 집권자의 차행력이 지나가자 《박근혜 퇴진!》 구호를 웨치며 항의의 운을 고조시켰다.

제미동포전국연합회와 제 도이칠란드동포협력회 홈페이지들, 제미동포인터네트신문 《민족통신》, 남조선의 인터넷신문 《서울의 소리》를 비롯한 언론들은 해외동포들의 투쟁소식을 전하면서 《박근혜》가 못매를 맞았다고 호소하였다.

본사기자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반북대결책동에 광분한 죄로 큰장을 맞고있는 《박근혜》

박근혜의 제안은 남북사이의 불신만 고조시킨다

남조선의 인터넷신문 《민중의 소리》가 3월 30일 남조선집권자의 반동일망언을 비난하는 학자 고승우의 글을 실었다.

글은 박근혜가 도이칠란드행각기간 《평화통일기반구축을 위한 3대제안》이라는것을 내놓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인도적문제해결》, 《인생기반구축》, 《남북주민간 동질성회복》을 내용으로 하는 《3대제안》은 빈말뿐이며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밝혔다.

특히 남북이 이미 7.4공

동성명, 6.15공동선언 등을 통해 통일의 대원칙에 대해 합의하여 국제적으로 큰 호응을 받았지만 박근혜는 그에 대해 침묵하였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리명박 《정부》와 같이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리행을 외면하고 미국과 함께 북에 대한 압박 및 봉쇄정책을 추진하고 그 누구의 《금번사태》에 대비한 군사훈련을 로망적으로 실시하여 북의 반발을 사고있다고 단죄하였다.

박근혜가 집권후 《5.24조치》를 계속 고집하면서 남북교류협력도 《북핵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식으로 남북관계개선에 나서지 않고있다고 까밝혔다.

이렇게 놓고볼 때 박근혜의 이번 제안이라는것은 오히려 남북사이의 불신만 고조시킬뿐이라고 주장하였다.

글은 《통일의 청사진》은 이미 7.4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 등에 다 밝혀져있다.》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 똑 같은 미시리들 ▷

역겨운 추태에 격분을 금치 못한다

박근혜가 뭐 공화국의 산모와 유아들에게 《영양지원》을 하겠다고? 참 사람 웃긴다. 내가 알고있기엔 남조선에서는 인류의 축복으로 되어야 할 임신과 출산이 곧 해고로 이어지는 불행이 되고 리면,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세대》가 만연한다고 했다. 또 청와대와 《새누리당》 때문에 유아들의 무상보육도 실현되지 못한다고 한다. 제 집안일도 제대로 꾸리지 못하면서 누를 《격정》한 다음 부부싸움까지 못하는 아나네 이마털만 뽑는다는 격이다.

우리 공화국의 녀성들은 《천정집》이라 부르는 여기 평양산원을 비롯한 훌륭한 병원에서 세상에 부럼없는 최상, 최고의 혜택을 받으며 아이들을 사회주의강성국가의 보배들로 키우고있다. 아이를 낳아보지도, 길러보지도 못한 박근혜가 누를 생각해주겠다는 알은수의 행동은 사람들에게 제 인기를 울려보자는것으로밖에 안 보인다.

공화국의 현실도 모르면서 체신머리없이 밖에 나가 수다를 떠는것을 보니 벌써 로망중세가 있는 모양이다. 평양산원교장 김영애

다는 차분히 머리를 식히고 상대인 북을 바로 알고 리해하는 눈부터 띄워야 할것이다.

먹은 나이가 아깝다

박근혜가 해외에 나가 우리를 헐뜯다 못해 가스름게도 공화국의 입신부와 아이들을 생각하는척 하면서 그 무슨 《산모와 유아영양지원》이니 뭐니 했다는데 그야말로 불을 꼬집어주고 쓸어주는 격이다.

그때 우리 공화국의 녀성들과 아이들이 헐벗고 굶어 죽을 지경에 처해있다는 소리인가.

돈이 모든것을 지배하는 남쪽사회에서는 녀성들이 학대와 폭행, 수모와 멸시속에 삶에 대한 희망과 포부마저 포기하고 비판과 질타에 빠져 죽음을 길을 택하고있다고 한다.

돈이 없으면 아이를 낳아 키울수 있는 어머니로서의 권고 놓아두지 않는것이 바로 녀성철폐, 녀성멸시의 씩어빠진 남조선사회이다.

하지만 녀성존중, 녀성사랑의 화원인 우리 공화국에서는 녀성들이 시대의 꽃, 나라의 꽃으로 떠받들리우며 값높은 삶을 누리고있다.

국가의 혜택속에 충분한 산전산후휴가가 보장되고 훌륭한 시설을 갖춘 산원과 탁아소, 유치원들이 가는 곳마다 있어 우리 녀성들은 아무런

걱정없이 아이들을 낳아 키우고있다.

세아이의 어머니인 나자 신도 평양산원에서 아무런 걱정없이 아이들을 낳았으며 무료교육의 사회적혜택속에 대학공부까지 시키고있다.

벼룩이도 낮짝이 있다는데 제 집안의 녀성들도 돌보지 않아 그들을 삶의 낭떠러지에 내모는 박근혜가 당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최상, 최대의 혜택을 받고있는 우리 녀성들과 아이들을 생각

하는것처럼 너스레를 떨었으니 그야말로 들판에 매어놓은 암소도 웃다 꾸레미리질 노릇이다.

나이 60에 칠든다는 말이 있는데 박근혜의 먹은 나이가 아깝다.

옛적부터 녀자는 제 마당 천리를 돌아야 집살림이 반짝 반짝해진다고 한다. 마을들이 천리를 헤쳐야 주먹질밖에 더 차례질것이었다.

현실을 바로 볼줄 모르고 머리에 든것이 없는 박근혜가 해외를 돌아치며 동족대결의 가벼운 허바타를 돌려대야 차례질것은 자기 망신밖에 없다.

평양시 보통강구역 신원동 윤선희

무식하고 체신머리없는 녀자

이번에 박근혜가 도이칠란드에 가서 는 꼴을 보니 정말 눈이 까깝다.

어쩌면 그렇게도 머리에 든것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때도 명색이 《대통령》이라하면 상대에 대한 초보적인 리해야 상식정도야 가지고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뒤끝밖에 알아 인간스레기들이 췌친 악담을 그대로 섬겨버린 정보원정들의 각본을 그대로 외워대나니 아직도 격면하는 우리의 현실을 보지

못하고 《경제난》이 어떻고 《배고픔》이 어떻다느니 하고 놀이엔 꼴을 보면 기가 막힌다.

아마 박근혜는 우리가 아직도 고난의 행군을 하고있는가 하는 모양인데 정말 사람 웃기는 노릇이다.

지능지수가 낮아 그 이상은 세상을 바라보지 못해 2MB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던 리명박이나 무식하기로 소문난 부부와 한치도 다를바 없다. 《경제난》이요 《배고픔》이요 하고 요란하게 웨치기보

다한 차분히 머리를 식히고 상대인 북을 바로 알고 리해하는 눈부터 띄워야 할것이다.

먹은 나이가 아깝다

박근혜가 해외에 나가 우리를 헐뜯다 못해 가스름게도 공화국의 입신부와 아이들을 생각하는척 하면서 그 무슨 《산모와 유아영양지원》이니 뭐니 했다는데 그야말로 불을 꼬집어주고 쓸어주는 격이다.

그때 우리 공화국의 녀성들과 아이들이 헐벗고 굶어 죽을 지경에 처해있다는 소리인가.

돈이 모든것을 지배하는 남쪽사회에서는 녀성들이 학대와 폭행, 수모와 멸시속에 삶에 대한 희망과 포부마저 포기하고 비판과 질타에 빠져 죽음을 길을 택하고있다고 한다.

돈이 없으면 아이를 낳아 키울수 있는 어머니로서의 권고 놓아두지 않는것이 바로 녀성철폐, 녀성멸시의 씩어빠진 남조선사회이다.

하지만 녀성존중, 녀성사랑의 화원인 우리 공화국에서는 녀성들이 시대의 꽃, 나라의 꽃으로 떠받들리우며 값높은 삶을 누리고있다.

국가의 혜택속에 충분한 산전산후휴가가 보장되고 훌륭한 시설을 갖춘 산원과 탁아소, 유치원들이 가는 곳마다 있어 우리 녀성들은 아무런

걱정없이 아이들을 낳아 키우고있다.

세아이의 어머니인 나자 신도 평양산원에서 아무런 걱정없이 아이들을 낳았으며 무료교육의 사회적혜택속에 대학공부까지 시키고있다.

벼룩이도 낮짝이 있다는데 제 집안의 녀성들도 돌보지 않아 그들을 삶의 낭떠러지에 내모는 박근혜가 당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최상, 최대의 혜택을 받고있는 우리 녀성들과 아이들을 생각

하는것처럼 너스레를 떨었으니 그야말로 들판에 매어놓은 암소도 웃다 꾸레미리질 노릇이다.

나이 60에 칠든다는 말이 있는데 박근혜의 먹은 나이가 아깝다.

옛적부터 녀자는 제 마당 천리를 돌아야 집살림이 반짝 반짝해진다고 한다. 마을들이 천리를 헤쳐야 주먹질밖에 더 차례질것이었다.

현실을 바로 볼줄 모르고 머리에 든것이 없는 박근혜가 해외를 돌아치며 동족대결의 가벼운 허바타를 돌려대야 차례질것은 자기 망신밖에 없다.

평양시 보통강구역 신원동 윤선희

《죽음을 미제침략자들에게》, 이 노래 다시 들으며

공화국에는 반미주의의 노래들이 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반미가요. 창작되어 반세기 이상 흘렀지만 인민들속에서 미제에 대한 증오로 심장을 불태우며 변함없이 불리워지는 노래가 다름아닌 《죽음을 미제침략자들에게》이다.

동무들이 언제든지 경각성을 높이자 우리의 눈앞엔 미제가 있다. 피에 주린 승냥이 미제침략자 전쟁을 찾아대며 발광을 한다. 미제는 우리의 철천지원수 대대손손 팔수에 사무친 원수 증오와 분노의 피가 끓는다

소량하자 박멸하자 죽음을 주자

우리 나라의 절반땅을 타고앉아 퍼버린내나는 침략의 역사를 이어가며 조선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쭉날쭉 미제에 대한 증오와 복수의 감정을 띤 노래 《죽음을 미제침략자들에게》! 이 노래를 들 때마다 원수 미제에 대한 불타는 증오와 적개심으로 심장이 높뛰군 한다. 노래에도 있는 것처럼 미국은 침략과 살육을 기질로 하는 피에 주린 승냥이이고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수이며 대를 이어오며 뼈에 사무친 백년속적이다. 미국은 백수십년전부터

조선땅에 침략의 마수를 뻗쳐왔고 오늘날까지도 침략의 야망을 버리지 않고 날뛰는 괴뢰치한 침략의 나라이다. 삼천리강토를 둘로 갈라놓고 조선인민에게 분리의 고통을 들쭉날쭉 장본인이 바로 미국이며 이 땅에 침략전쟁의 불을 지르고 조선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을 강요한 주범도 바로 미국이다.

은 거레가 나라의 통일을 간절히 바라며 이를 위해 발벗고 나설 때마다 통일을 바라는 거레의 마음에 칼질을 해대며 회방을 놓은것도 다름아닌 미국이었다. 아직도 날강도 미국은 저들의 침략적목적을 실현해보려고 수많은 핵무기들을 남

조선에 끌어들이며 해마다 핵전쟁연습소동을 광란적으로 벌려놓고있다. 날이 갈수록 더해지는 미국의 침략책동으로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의 증오의 피는 끓어넘쳤고 미제침략자들에게 죽음을 주자는 노래는 분노의 웨침이 되어 울려 퍼졌다.

일터에서 초소에서 이 노래를 처음 불렀던 20대의 꽃나이청춘들이 이제는 머리에 흰머리를 엮었지만 노래는 세대를 이어 변함없이 불리워지며 미제침략자들의 가슴팍에 서리발치는 분노의 총검을 박고있다. 세월과 함께 오선지의 소리를 들은 색이 바랜수 있어도 제국주의 미국에 대한 공화국인민들의 증오의 감정은 변할수도 바랄수도 없는 것이다.

지금 세대와 세대를 이어오며 쌓이고 쌓인 미국에 대한 공화국 군대와 인민의 증오와 멸적의 감정은 폭발적 전염에 이르렀다.

중오와 분노의 피가 끓는다 소량하자 박멸하자 죽음을 주자

미국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이 계속되는 한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의 노래 《죽음을 미제침략자들에게》를 더욱 높이 부르며 세기를 이어오는 반미대결전에서 최후승리를 이룩해갈 것이다.

본사기자 리경순



미국에 대한 증오심이 활활 타오른다.

미국은 북남관계개선의 암초 (2)

광란적인 반공화국핵소동에 매달려

1990년대에 들어와 공화국 정부의 적극적이고 성의있는 노력과 은 거레의 거룩한 통일애국운동에 의하여 북과 남사이에는 전민적대화의 장이 열리고 조국통일 환경이 마련되어갔다. 그런데 미국은 반공화국핵소동을 광란적으로 벌리면서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열기에 찬물을 끼얹고 조선반도정세를 일촉즉발의 전쟁적경계로 몰아갔다. 이미 1980년대 북남사이에서 적십자회담이 진행되고 큰물파해를 일으킨 남조선인민들에게 공화국의 지성어린 구조물자가 전달되었으며 예술단, 교향방문단이 서로 래향하면서 화해의 분위기가 조

성되었을 때 우리 민족의 머리 위에 핵폭동을 내리뒤로며 북침전경도발책등을 일촉즉발화하는것으로 그에 빗장을 걸었던 미국이다. 1990년대초 미국은 그 누구의 《핵개발》이니 뭐니 하며 유엔안전보장리사회까지 발동하여 공화국에 대한 경제제재소동에 광분하였다. 특히 군사대상물들에 대한 《특별사찰》을 강요하면서 공화국의 자주권과 외교적 이익을 엄중히 위협해나갔다. 미국은 도발적인 유엔 《제재결의》로 공화국을 압박하였을뿐아니라 핵을 로골적으로 휘두르며 우리 민족을 위협공갈하였다. 미국은 핵잠수함 《센트럴 세스코》 호와 이지스순양함 《사일로우》 호를 비롯한 최신핵전쟁수단을 남조선에 긴

급 과격하여 우리 민족에게 핵협박을 가하였다. 《핵위협》을 운운하며 120만명의 제국주의연합군과 태평양에 있는 방대한 핵무기들을 조선반도주변에 긴급출동시키고 대조선외환을 결성으로 형성한 미국은 중지했던 《림 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도 재개해나갔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 공화국에 중전시상태가 심로되오 조선반도정세는 전쟁의 문이구까지 달랐다. 미국은 평정후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는 군사연습의 규모를 줄이면서도 조선반도에서는 맹전시와 다름없이 해마다 북침군사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려놓으며 전쟁열을 끊임없이 고취하였다. 1994년초 공화국의 평화적 핵시설들에 대한 기습적인

《외과수술식타격》을 준비하면서 미국은 캐롤라이나주에서 서론까지에 있는 제4전투비행단소속 《F-15E》 전투폭격기들을 출동시켜 공화국에 대한 핵폭격훈련까지 감행하였다. 미국이 세운 1990년대의 《신작전계획 5027》, 《작전계획 5027-98》을 비롯한 모든 작전계획들은 철저히 핵전쟁을 기조로 삼아져서 작성되었다.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무기반입과 배비는 부단히 증대되어 그 수가 1990년대에는 1 720여기에 달하였으며 배비밀도에서 세계최대로 되었다. 남조선에 세계최대의 핵무기로 만든 미국은 핵무기반입을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 《NCND정책》을 내세우고 우리 민족과 세계여론

그날은 청명한 날이었다. 파랗게 개인 하늘엔 봄날의 희부연 안개마냥 흰구름 몇송이만이 가벼이 굴실거리고 있을뿐이었다. 아직은 봄에 닿는 바람이 싸늘했고 산과 들에 새싹이 내불리에는 때 이른 무렵이었다. 하긴만 사람들은 싱싱한 하늘의 다함없는 청신함에 눈을 부비며 떠나없이 봄의 전조를 느끼고있었다. 립춘이 하루 지난 때여서였을가. 하긴 립춘이라면 우리 거레의 마음속에 봄이 찾아드는 절기이다. 해마다 이날이 오면 우리의 할아버지들과 할머니들은 집안팎을 개곳이 손질하고 새해의 소원과 새봄을 축복하는 립춘글을 써서 대문이나 기둥에 붙였다가 없었다. 허나 그날 사람들의 가슴이 봄의 훈향을 머금고 류달리 설레는것은 다만 대물림하며 전해온 조상의 유

승매문만은 아니었다. 그보다는 불신과 대결로 얼어붙었던 삼천리강토우에 훈훈하게 울려 퍼진 화해와 단합의 서곡때문이었으리라. 올해의 첫 아침 내외에 천명하신 절세의 예국자의 뜨거운 호소에 이끌려, 조국통일과 평화변명을 열망하는 7천만의 절절한 넋에서 떠날 줄과 마침내 그날 헤어진다. 즉, 친척상봉을 위한 북남적십자실무접촉이 판문점에서 열렸던 것이다. 희소식이였다. 거레의 가슴속에 봄의 훈기를 안겨준 화해의 서곡이었다. 어디를 보나 웃음과 기쁨이 떠돌았다. 단지 흠어진 가족, 친척상봉에만 머무르지 아니라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해치려는 핵전쟁연습을 중단하고 《대북제재》늘음을 걷어치우야 한다는 격양된 목소리들이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터져나왔다. 사람들은 《화해》와 《단합》, 《통일》이라는 단어를 립

봄하늘에서 울려온 폭음. 춘갈인양 마음속에 새물이며 온 강토가 환희에 끓어넘치던 6.15의 그날을 새삼스럽게 떠올리고있었다. 바야흐로 이 땅우에 거창한 연두빛과도로 도래할 민족단합의 새봄을 가슴부풀도록 꿈꾸어보고있다. 그런데 이 무슨 일인가. 봄의 서기가 떠돌던 조선반도의 하늘을 뒤흔들며 난데없이 스산한 폭음이 메아리쳐왔으니 말이다. 미국의 《B-52》 핵전략폭격기편대들이 북을 겨냥한 핵타격연습을 하기 위해 조선서해 직도상공에 날아들었다는 것이 아닌가. 온 거레가 경악했다. 봄별이 비스듬스듯살던 조선반도는 갑자기 들이닥친 긴장과 불안으로 하여 다시금 한겨울로 되돌아가버리고말았다. 비단 북녘뿐이었으랴. 남녘의 민심도 《해도해도 너무 한다》, 《하릴 리산가 족상봉회담날 핵폭격기 띄웠나?》, 《미국, 몽니를 부리는것인가?》, 《하를로 부러 날아오는 전쟁의 불씨 B-52 투입 중단하라!》고 웨치며 울분의 함성을 높였다. 하긴만 미국의 오만무도한 행보는 멈춰설 줄 몰랐다. 공화국의 통 큰 용단에 의해서 마침내 북과 남사이 화해의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하자 미국주관 케리는 작심하



《B-52》 핵 전략 폭격기

지난 3월초부터 막을 올린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최대로 격화시키면서 일촉즉발의 핵전쟁위험을 조성시키고있다. 지금 미국과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이 포항에서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의 일환으로 벌려놓은 《쌍룡》 연합상륙훈련을 두고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3월 27일에 시작되어 무려 12일동안이나 진행되는 연합상륙훈련은 전형적인 공격훈련이다. 이 불장난에는 오키나와주둔 미3해병전투사단과 남조선군해병대 등 1만 2 500여명의 침략부대와 직속기갑사상륙함, 구축함 등 군함 7척과 《CH-53S》 수송헬기, 《C-130》 수송기, 고속기동용 수직리착륙수송기 등 최신공격장비들이 대대적으로 투입되었다.

한동안 《독수리》 훈련이 공화국을 《자극조절》이요 하기 위해 수위조절이요 하던 시기에 대한 언론공개를 삼가하던 미국과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이 이번에는 그들의 광기어린 불장난소동을 언론을 통해 적극 공개하면서 북침전쟁열을 올리고있다. 호전광들은 공화국북반부 해안지대로의 상륙을 위한 교두보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상륙작전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해 상륙돌격장갑차, 공기방사정 등에 의한 상륙훈련을 맹렬히 벌려왔다. 또한 《CH-53S》 직속기

《방어적》이라는 괴뢰치한 주장을 내뉘었다. 하지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의 일환으로 벌어진 이번 연합상륙훈련의 규모와 목적만 보아도 그것이 한갓 기만적인 선전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알수 있다. 이번 연합상륙훈련에 참가하고있는 미해병대 제3해병원정령단은 이라크전쟁에 참가하여 실전능력을 쌓고 공

대방에 대한 로골적인 위협이며 공공연한 전쟁도발책동이다. 허다면 무엇때문에 미국과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이 대규모의 연합상륙훈련을 벌려놓고 그것을 요란히 공개하며 긴장상태를 부채질하고있는가 하는 것이다. 원래 군사적도발로 상대방을 자극하여 맞대응으로 번져지면 도적이 도적이야 하는 식으로 침략의 불을 지르는것은 미국 상투적수법이다. 군사적위협과 공갈소동으로 정세를 극도로 격화시키고 무장충동을 야기시켜 북침전쟁을 일으키는것, 이것이 최대규모의 연합상륙훈련을 벌려놓고 그것을 대대적으로 공개하면서 긴장상태를 격화시켜놓고 종당에는 침략전쟁으로 이어가자는것이 미국과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이 추구하는 음흉한 속심이다. 사실들은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전쟁위기를 불러오는 진짜도발자는 바로 미국이라는 것을 날날이 고발하고있다. 본사기자 주광일

평화를 해치는 불장난소동

와 《C-130》 수송기들이 후방침투임무를 맡은 병력과 물자들을 대대적으로 실어나르고 남조선군 수송함선들은 양포와 각종 군용차량, 병력들을 해안선에 부리우며 실전능을 방불케 하는 소동을 벌려왔다. 특히 주목을 끈것은 남조선에 날아온 미해병대의 수직리착륙기 《MV-22오스트레이》 22대가 훈련장상공을 돌이키며 북침화확내를 질게 공진중이다. 미국과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은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그 무슨 《년례적》이

평화를 해치는 불장난소동. 공화국에 대한 공격작전을 기본임무로 삼으면서 조선반도 《유사시》 제1연차 투입되는 침략부대이다. 남조선의 언론들도 이번 연합상륙훈련은 1993년 《림 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후 21년만에 최대규모라고 한다. 더우기 《쌍룡》 연합상륙훈련은 공화국의 심장부를 겨냥한것으로서 명백히 침략적이고 공격적이며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의 최절정이다. 군사상식으로 보아도 대규모의 북침전쟁연습은 상

영국에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침략전쟁연습을 규탄하는 시위 진행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 반공화국 《인권》소동에 항의하는 시위가 3월 27일 영국주재 미국대사관앞에서 진행되었다. 시위에는 영국신공산당, 선군정치연구협회, 주재사상연구소, 조선과의 친선협회 영국지부의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시위자들은 《미군은 남조선에서 물러가라》, 《제국주의를 타도하라》, 《미제는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으로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협한다》라고 쓴 프랑카드들을 들고있었다. 그들은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 지난해 조선반도에서 로골적으로 군사적긴장을 고조시켜 정세를 전쟁적경계로 몰아간데 이어 올해 2월말부터 또다시 침략적인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아 불안정을 지속시키고있는데 대하여 규탄하였다. 그들은 미국이 합동군사연습을 《년례적》이니 뭐니 하지만 군사연습에 동원된 장비와 인원소모로 보아 주체사상에 기초한 인민대중중심의 조선식사회주의를 말살하기 위한 침략전쟁연습이라고 까밝혔다. 또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인권》소동을 조선을 고립압살하기 위한 책동으로

단죄하였다. 시위자들은 공화국을 휘날리며 반미구호들을 외치면서 미국이 침략전쟁연습을 당장 중지하고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며 대조선적대시정책과 각종 제재를 철회하고 반공화국 《인권》소동을 걷어치울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들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폭로하는 선전물들을 보행자들에게 나누어주었다. 본사기자

침략적인 상륙훈련에 항의

남조선의 인터넷신문 《동일뉴스》에 의하면 3월 31일 남조선의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 성원들이 미제와 그 추종세력의 침략적인 《쌍룡》 훈련을 규탄하여 경상북도 포함일대에서 항의시위투쟁을 전개하였다.

시위자들은 대규모상륙훈련은 그 누구의 공격을 격퇴하는 《방어훈련》이 아니라 상대방의 주요거점 점령을 위한 공격훈련이라고 단죄하였다. 남북대화의 장을 열고 평

화체제추진을 위한 평화협상을 해야 할 때에 군사적대행동이 강행되는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하면서 시위자들은 호전광들이 군사연습을 당장 중지할것을 요구하였다. 본사기자



침략적인 전쟁연습소동의 중지를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

봄하늘에서 울려온 폭음

춘갈인양 마음속에 새물이며 온 강토가 환희에 끓어넘치던 6.15의 그날을 새삼스럽게 떠올리고있었다. 바야흐로 이 땅우에 거창한 연두빛과도로 도래할 민족단합의 새봄을 가슴부풀도록 꿈꾸어보고있다. 그런데 이 무슨 일인가. 봄의 서기가 떠돌던 조선반도의 하늘을 뒤흔들며 난데없이 스산한 폭음이 메아리쳐왔으니 말이다. 미국의 《B-52》 핵전략폭격기편대들이 북을 겨냥한 핵타격연습을 하기 위해 조선서해 직도상공에 날아들었다는 것이 아닌가. 온 거레가 경악했다. 봄별이 비스듬스듯살던 조선반도는 갑자기 들이닥친 긴장과 불안으로 하여 다시금 한겨울로 되돌아가버리고말았다. 비단 북녘뿐이었으랴. 남녘의 민심도 《해도해도 너무 한다》, 《하릴 리산가 족상봉회담날 핵폭격기 띄웠나?》, 《미국, 몽니를 부리는것인가?》, 《하를로 부러 날아오는 전쟁의 불씨 B-52 투입 중단하라!》고 웨치며 울분의 함성을 높였다. 하긴만 미국의 오만무도한 행보는 멈춰설 줄 몰랐다. 공화국의 통 큰 용단에 의해서 마침내 북과 남사이 화해의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하자 미국주관 케리는 작심하

고있었던듯 공화국을 《악》이라고 헐뜯으며 또다시 이 땅우에 긴장과 대결의 찬바람을 불어왔다. 어디 그뿐인가. 미행정부의 교외외교 당국자들이 뭉들찌기에 불이 일게 기여하여 《핵문제를 떠난 관계개선은 있을수 없다》. 《한미관계는 시험할수 있는 용직이다》. 《미국이 하고 피대를 뜯어대며 남쪽 당국을 압박하고있다니 참으라 조상들의 표현을 빌려 말한단데 제 머뭇말에 제를 부리는 비렬한것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무엇보다도 미국은 이 땅에 화해의 봄이 오는것을 그처럼 탐마해하는것이다. 우리 거레가 화해에 단합하는것은 미국이 넘볼처럼 위위오던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과 그다지도 무순되는 수화상국이란 말인가. 불현듯 우리 민족의 가슴속에 쓰러린 상처로 새겨져있는 《파트너-가르라협정》에 얽힌 비화가 떠오른다. 1905년 7월 29일 루즈벨트 미국대통령의 특사였던 미국군장관 윌리엄 타프트와 일본수상 가쓰라 다로사이에 벌어진 도포비밀회담에서 로씨야세력을 밀어냄으로써 장차 동북아시아를 제패하기 위한 유리한 발판을 마련할 목적으로 일제의 조선강점의 공명으로 나섰던 것이다. 저들의 국익을 위해 조선봉건정부와 맺은 조

약을 헌신짝처럼 차버린것이다. 그런줄도 모르고 로일전쟁에서의 일본의 거듭되는 승전앞에 초조해하던 조선봉건정부는 미국대통령 루즈벨트의 중재로 포츠머스에서 로 일간에 강화회담이 진행되는데는 소식이 들려오자 구세주를 만난것처럼 환성을 울리며 미국에 밀사를 파견한다. 루즈벨트의 큰말을 초청하여 환대를 베풀다 하며 한바탕 분주함을 피웠더니 실로 기가 막히는 일이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위선적인 정체를 간파하였는 너무도 무력하고 어질어빠졌던 조선봉건정부로서는 포츠머스회담의 중재자인 미국대통령이 《조미조약》에서 약속한바대로 자신의 독립을 보전하기 위해 적극 힘써주리라 기대해마지 않았을것이다. 만일 그때 고종황제가 타프트와 가르라사이에 벌어진 모의를 알았다면, 그리고 루즈벨트가 이미전에 《미국은 조선인민을 위해 일본에 대항할수는 없다》고 언명한 사실을 알았다면 그 심경이 어땠을가. 그로부터 몇달후 일제에 의해 《울사조약》이 날조되기 바쁘게 미국은 조선에서 로씨야세력을 밀어냄으로써 장차 동북아시아를 제패하기 위한 유리한 발판을 마련할 목적으로 일제의 조선강점의 공명으로 나섰던 것이다. 저들의 국익을 위해 조선봉건정부와 맺은 조

약을 헌신짝처럼 차버린것이다. 그런줄도 모르고 로일전쟁에서의 일본의 거듭되는 승전앞에 초조해하던 조선봉건정부는 미국대통령 루즈벨트의 중재로 포츠머스에서 로 일간에 강화회담이 진행되는데는 소식이 들려오자 구세주를 만난것처럼 환성을 울리며 미국에 밀사를 파견한다. 루즈벨트의 큰말을 초청하여 환대를 베풀다 하며 한바탕 분주함을 피웠더니 실로 기가 막히는 일이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위선적인 정체를 간파하였는 너무도 무력하고 어질어빠졌던 조선봉건정부로서는 포츠머스회담의 중재자인 미국대통령이 《조미조약》에서 약속한바대로 자신의 독립을 보전하기 위해 적극 힘써주리라 기대해마지 않았을것이다. 만일 그때 고종황제가 타프트와 가르라사이에 벌어진 모의를 알았다면, 그리고 루즈벨트가 이미전에 《미국은 조선인민을 위해 일본에 대항할수는 없다》고 언명한 사실을 알았다면 그 심경이 어땠을가. 그로부터 몇달후 일제에 의해 《울사조약》이 날조되기 바쁘게 미국은 조선에서 로씨야세력을 밀어냄으로써 장차 동북아시아를 제패하기 위한 유리한 발판을 마련할 목적으로 일제의 조선강점의 공명으로 나섰던 것이다. 저들의 국익을 위해 조선봉건정부와 맺은 조

약을 헌신짝처럼 차버린것이다. 그런줄도 모르고 로일전쟁에서의 일본의 거듭되는 승전앞에 초조해하던 조선봉건정부는 미국대통령 루즈벨트의 중재로 포츠머스에서 로 일간에 강화회담이 진행되는데는 소식이 들려오자 구세주를 만난것처럼 환성을 울리며 미국에 밀사를 파견한다. 루즈벨트의 큰말을 초청하여 환대를 베풀다 하며 한바탕 분주함을 피웠더니 실로 기가 막히는 일이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위선적인 정체를 간파하였는 너무도 무력하고 어질어빠졌던 조선봉건정부로서는 포츠머스회담의 중재자인 미국대통령이 《조미조약》에서 약속한바대로 자신의 독립을 보전하기 위해 적극 힘써주리라 기대해마지 않았을것이다. 만일 그때 고종황제가 타프트와 가르라사이에 벌어진 모의를 알았다면, 그리고 루즈벨트가 이미전에 《미국은 조선인민을 위해 일본에 대항할수는 없다》고 언명한 사실을 알았다면 그 심경이 어땠을가. 그로부터 몇달후 일제에 의해 《울사조약》이 날조되기 바쁘게 미국은 조선에서 로씨야세력을 밀어냄으로써 장차 동북아시아를 제패하기 위한 유리한 발판을 마련할 목적으로 일제의 조선강점의 공명으로 나섰던 것이다. 저들의 국익을 위해 조선봉건정부와 맺은 조

약을 헌신짝처럼 차버린것이다. 그런줄도 모르고 로일전쟁에서의 일본의 거듭되는 승전앞에 초조해하던 조선봉건정부는 미국대통령 루즈벨트의 중재로 포츠머스에서 로 일간에 강화회담이 진행되는데는 소식이 들려오자 구세주를 만난것처럼 환성을 울리며 미국에 밀사를 파견한다. 루즈벨트의 큰말을 초청하여 환대를 베풀다 하며 한바탕 분주함을 피웠더니 실로 기가 막히는 일이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위선적인 정체를 간파하였는 너무도 무력하고 어질어빠졌던 조선봉건정부로서는 포츠머스회담의 중재자인 미국대통령이 《조미조약》에서 약속한바대로 자신의 독립을 보전하기 위해 적극 힘써주리라 기대해마지 않았을것이다. 만일 그때 고종황제가 타프트와 가르라사이에 벌어진 모의를 알았다면, 그리고 루즈벨트가 이미전에 《미국은 조선인민을 위해 일본에 대항할수는 없다》고 언명한 사실을 알았다면 그 심경이 어땠을가. 그로부터 몇달후 일제에 의해 《울사조약》이 날조되기 바쁘게 미국은 조선에서 로씨야세력을 밀어냄으로써 장차 동북아시아를 제패하기 위한 유리한 발판을 마련할 목적으로 일제의 조선강점의 공명으로 나섰던 것이다. 저들의 국익을 위해 조선봉건정부와 맺은 조

약을 헌신짝처럼 차버린것이다. 그런줄도 모르고 로일전쟁에서의 일본의 거듭되는 승전앞에 초조해하던 조선봉건정부는 미국대통령 루즈벨트의 중재로 포츠머스에서 로 일간에 강화회담이 진행되는데는 소식이 들려오자 구세주를 만난것처럼 환성을 울리며 미국에 밀사를 파견한다. 루즈벨트의 큰말을 초청하여 환대를 베풀다 하며 한바탕 분주함을 피웠더니 실로 기가 막히는 일이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위선적인 정체를 간파하였는 너무도 무력하고 어질어빠졌던 조선봉건정부로서는 포츠머스회담의 중재자인 미국대통령이 《조미조약》에서 약속한바대로 자신의 독립을 보전하기 위해 적극 힘써주리라 기대해마지 않았을것이다. 만일 그때 고종황제가 타프트와 가르라사이에 벌어진 모의를 알았다면, 그리고 루즈벨트가 이미전에 《미국은 조선인민을 위해 일본에 대항할수는 없다》고 언명한 사실을 알았다면 그 심경이 어땠을가. 그로부터 몇달후 일제에 의해 《울사조약》이 날조되기 바쁘게 미국은 조선에서 로씨야세력을 밀어냄으로써 장차 동북아시아를 제패하기 위한 유리한 발판을 마련할 목적으로 일제의 조선강점의 공명으로 나섰던 것이다. 저들의 국익을 위해 조선봉건정부와 맺은 조

약을 헌신짝처럼 차버린것이다. 그런줄도 모르고 로일전쟁에서의 일본의 거듭되는 승전앞에 초조해하던 조선봉건정부는 미국대통령 루즈벨트의 중재로 포츠머스에서 로 일간에 강화회담이 진행되는데는 소식이 들려오자 구세주를 만난것처럼 환성을 울리며 미국에 밀사를 파견한다. 루즈벨트의 큰말을 초청하여 환대를 베풀다 하며 한바탕 분주함을 피웠더니 실로 기가 막히는 일이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위선적인 정체를 간파하였는 너무도 무력하고 어질어빠졌던 조선봉건정부로서는 포츠머스회담의 중재자인 미국대통령이 《조미조약》에서 약속한바대로 자신의 독립을 보전하기 위해 적극 힘써주리라 기대해마지 않았을것이다. 만일 그때 고종황제가 타프트와 가르라사이에 벌어진 모의를 알았다면, 그리고 루즈벨트가 이미전에 《미국은 조선인민을 위해 일본에 대항할수는 없다》고 언명한 사실을 알았다면 그 심경이 어땠을가. 그로부터 몇달후 일제에 의해 《울사조약》이 날조되기 바쁘게 미국은 조선에서 로씨야세력을 밀어냄으로써 장차 동북아시아를 제패하기 위한 유리한 발판을 마련할 목적으로 일제의 조선강점의 공명으로 나섰던 것이다. 저들의 국익을 위해 조선봉건정부와 맺은 조

약을 헌신짝처럼 차버린것이다. 그런줄도 모르고 로일전쟁에서의 일본의 거듭되는 승전앞에 초조해하던 조선봉건정부는 미국대통령 루즈벨트의 중재로 포츠머스에서 로 일간에 강화회담이 진행되는데는 소식이 들려오자 구세주를 만난것처럼 환성을 울리며 미국에 밀사를 파견한다. 루즈벨트의 큰말을 초청하여 환대를 베풀다 하며 한바탕 분주함을 피웠더니 실로 기가 막히는 일이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위선적인 정체를 간파하였는 너무도 무력하고 어질어빠졌던 조선봉건정부로서는 포츠머스회담의 중재자인 미국대통령이 《조미조약》에서 약속한바대로 자신의 독립을 보전하기 위해 적극 힘써주리라 기대해마지 않았을것이다. 만일 그때 고종황제가 타프트와 가르라사이에 벌어진 모의를 알았다면, 그리고 루즈벨트가 이미전에 《미국은 조선인민을 위해 일본에 대항할수는 없다》고 언명한 사실을 알았다면 그 심경이 어땠을가. 그로부터 몇달후 일제에 의해 《울사조약》이 날조되기 바쁘게 미국은 조선에서 로씨야세력을 밀어냄으로써 장차 동북아시아를 제패하기 위한 유리한 발판을 마련할 목적으로 일제의 조선강점의 공명으로 나섰던 것이다. 저들의 국익을 위해 조선봉건정부와 맺은 조

약을 헌신짝처럼 차버린것이다. 그런줄도 모르고 로일전쟁에서의 일본의 거듭되는 승전앞에 초조해하던 조선봉건정부는 미국대통령 루즈벨트의 중재로 포츠머스에서 로 일간에 강화회담이 진행되는데는 소식이 들려오자 구세주를 만난것처럼 환성을 울리며 미국에 밀사를 파견한다. 루즈벨트의 큰말을 초청하여 환대를 베풀다 하며 한바탕 분주함을 피웠더니 실로 기가 막히는 일이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위선적인 정체를 간파하였는 너무도 무력하고 어질어빠졌던 조선봉건정부로서는 포츠머스회담의 중재자인 미국대통령이 《조미조약》에서 약속한바대로 자신의 독립을 보전하기 위해 적극 힘써주리라 기대해마지 않았을것이다. 만일 그때 고종황제가 타프트와 가르라사이에 벌어진 모의를 알았다면, 그리고 루즈벨트가 이미전에 《미국은 조선인민을 위해 일본에 대항할수는 없다》고 언명한 사실을 알았다면 그 심경이 어땠을가. 그로부터 몇달후 일제에 의해 《울사조약》이 날조되기 바쁘게 미국은 조선에서 로씨야세력을 밀어냄으로써 장차 동북아시아를 제패하기 위한 유리한 발판을 마련할 목적으로 일제의 조선강점의 공명으로 나섰던 것이다. 저들의 국익을 위해 조선봉건정부와 맺은 조

수기 일심단결된 내 조국의 참모습을 보았다 (2)

경탄을 자아내는 선거결과

선거장에서 받은 감동이 식기도 전에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선거결과 발표 소식이 나의 심장을 세차게 두드렸다.

제111호 백두산선거구에서 100% 참가, 100% 찬성으로 경애하는 김정일수님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높이 추대!

전체 선거자의 99.97%가 선거에 참가, 모든 후보자에게 100% 찬성투표!

총격적이었다.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외신들도 《유사적인 사변》, 《전세계에서 보기도 못한 사태》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우연한 것이 아니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선거에서 100%라는 말자체를 입에 올릴 수가 없다.

리얼이 다르고 계급과 계층간의 리해관계가 상충되며 같은 당안에서도 계급에 따라 갈라지고 리합집산을 받먹듯 하는 사회에서 100%라는 개념은 애초에 생각할 수 없기 마련이다. 유권자의 50%만 참가해도 선거가 《평정한 관습과 기대》속에서 진행된 것이 묘사되고 《3삭 등이 대통령》, 《4삭 등이 국회의원》이란 비난을 받아도 아무런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다나 선거이후의 상황도 갈등도 모순의 폭발로 이어지고 폐한 쪽이 부정협잡을 떠들며 선거결과를 인정하려 들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선거결과에 불복하면서 사회적혼란을 조성하다

석같이 다지는 선거에 더없는 기쁨과 긍지를 안고 참가하는 것이다.

선출된 대의원후보자들 역시 모두가 인민의 대표자이다.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했으며 앞으로도 인민들의 아름다운 꿈을 실현시켜주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사람이다. 자기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자기들이 내세운 후보자들, 자기들을 대변할 사람들을 대의원으로 선출하는 선거가 《보이코트》할 유권자가 과연 어디 있었는가. 그러나 100% 참가, 100% 찬성이라는 선거결과가 당연지사인 것이다.

미국은 공화국의 선거를 앞두고 대규모적인 《키리졸브》, 《독수리》복합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여나섰지만 미국의 고위직자들이 장서서 《사악한 곳》, 《악의 나라》 등을 부르짖고 그 무는 《유엔인권보고서》라는 것을 내뿜으며 반공화국 인권소동을 대대적으로 벌였다. 한편으로는 《북극점사태》 설을 퍼뜨리며 《북사회의 혼란》과 《변화》를 유도해 보려고 획책하였다.

하지만 조국에서는 그 어떤 《변화》도 없었고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선거기간 최대의 정치적안정이 보장되고 고도의 질서가 유지되었으며 그 어떤 《소요》나 무질서란 찾아볼수조차 없었다.

해외로 들려오는 것은 하나같이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따르고 받들어가는 조국인민들의 고결한 총정에 대한 소식이었다. 선거를 뜻깊게 맞이하기 위한 로력적선물

을 마련하려는 드높은 열의 속에 강성국가건설장전에 새차게 휘몰아치는 대비약, 대혁신의 불바람소리, 마식령스키장을 비롯한 문명의 선경들에서 울려 퍼지는 행복찬 웃음소리, 기쁨과 랑만의 노래소리뿐이었다.

찬란을 자아내는 조국소식들은 미제의 전쟁소동을 잊을려고 《금남사》와 《변화》를 물거품되게 했다. 돈으로 살수도 없고 강요로 꾸며낼수도 없는 경축의 선거운위국에 그토록 요란하던 《북인권》소동의 부흥도 여지없이 깨어지고말았다.

* * *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선거의 성과적진행은 경애하는 김정일수님께 계시어 이룩된 고귀한 결정이었다. 새봄과 더불어 내 조국의 선경들에서 울려 퍼진 승리의 함성은 철세의 위인들에 대한 조국군민의 다함없는 존경과 호모의 메아리였다.

이 불멸의 화폭에서 온 거레는 위대한 평도자를 모시고 일심단결을 이룬 공화국이야말로 겨레의 참조국임을 다시금 새겼다. 이민위천이 현실로 꽃피는 인민공화국이 민족의 미래와 조국통일이 있음에 확신했다.

조국에서의 선거를 보며 공화국의 위상과 참모습을 새겨안은 나는 내 조국이 약속하는 젊음으로 끝없이 비약하며 무궁토록 현연일체의 화폭만을 펼치리라 믿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재중동포 김정인 (글)

이곳 봉사원들은 권총사격장이나 보총사격장보다 활쏘기장을 찾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말하고있다. 아마도 활쏘기는 우리 민족과 깊은 인연을 가지고있기때문인지... 우리 민족의 활쏘기력사는 수천년을 거슬러올라간다. 옛날 다른 민족들로부터 《활 잘 쏘는 민족》이라 불리울 정도로 우리 선조들은 활을 잘 만들고 활쏘기로 유명했다. 고구려를 세운 동명왕이 활쏘기에 뛰어났던 사실이나 고구려벽화에 말을 타고 달려서 뒤돌아 활을 쏘는 무사들의 모습이 우리 민족의 활쏘기솜씨를 쉽게 접할수 있다. 조선봉건왕조시대까지만 해도 곳곳에 활쏘기장이 있었고 동네마다 활터가 마련되어있어 누구나 쉽게 활을 쏠수 있었다고 한다.

메아리사격관의 실내 및 야외사격장들이 다 그러하지만 특히 2층에 있는 30m실내 활쏘기장은 사람들이 즐겨찾는 곳이다.

이곳에 가보면 진짜수림속에서 활을 쏘는 느낌을 받을수 있게 양옆벽은 통나무장식으로 마감되어있고 정면벽은 진자통나무로 되어있다. 목표판이 붙어있는 배경판은 푸른수풀을 형상한것으로 하여 누구나 이곳에 들어서면 원시림속에 있는 귀틀집에 들어온것 같다고 말하고있다.

이곳 봉사원들은 권총사격장이나 보총사격장보다 활쏘기장을 찾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말하고있다. 아마도 활쏘기는 우리 민족과 깊은 인연을 가지고있기때문인지... 우리 민족의 활쏘기력사는 수천년을 거슬러올라간다. 옛날 다른 민족들로부터 《활 잘 쏘는 민족》이라 불리울 정도로 우리 선조들은 활을 잘 만들고 활쏘기로 유명했다. 고구려를 세운 동명왕이 활쏘기에 뛰어났던 사실이나 고구려벽화에 말을 타고 달려서 뒤돌아 활을 쏘는 무사들의 모습이 우리 민족의 활쏘기솜씨를 쉽게 접할수 있다. 조선봉건왕조시대까지만 해도 곳곳에 활쏘기장이 있었고 동네마다 활터가 마련되어있어 누구나 쉽게 활을 쏠수 있었다고 한다.

원래 메아리사격관에는 활쏘기장이 없었는데 이번에 훌륭히 개건되면서 새로 꾸러졌다고 한다.

경애하는 김정일수님께 계시어 지난 2월 메아리사격관을 찾아주시어 이곳 30m실내 활쏘기장도 돌아보시었다. 이날 그이께서는 이런 활쏘기장을 아이들의 야영소에도 하나씩 꾸러주시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고 한다.

절세유인의 숭고한 후대사랑, 인민사랑에 떠날떠려 이제 여러 야영소에도 활쏘기장이 꾸러지게 된다. 여기 메아리사격관 활쏘기장만이 아니라 야영소들에 꾸러지게 될 활쏘기장들에서 피닉을 향해 힘껏 활시위를 당기며 선조들의 상무기풍에 어린 민족의 자랑스런 락사도 새기고 체력도 단련해갈 청소년들의 모습은 얼마만 회월에 넘치고 랑만적일것인가. 본사기자

고구려의 무사가 된 심정으로

이곳에 가보면 진짜수림속에서 활을 쏘는 느낌을 받을수 있게 양옆벽은 통나무장식으로 마감되어있고 정면벽은 진자통나무로 되어있다. 목표판이 붙어있는 배경판은 푸른수풀을 형상한것으로 하여 누구나 이곳에 들어서면 원시림속에 있는 귀틀집에 들어온것 같다고 말하고있다.



건강을 회복하고 대지를 활보할수 있게 되었다. 일터로 떠나는 노동자 류정에는 일원기간의 100%일은 온 나라가 하나의 대가정을 이룬 우리 사회의 참모습을 실생활로 체험한 감동깊은 날들이었다고 하면서 고마운 사회주의제도를 위해 한몸 다 바쳐갈 결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개성시인민병원에서 전신 50%의 3도화상환자 완치

뜻밖의 화상으로 사경에 처하였던 처녀노동자가 100여일만에 개성시인민병원의료인들과 인민들의 뜨거운 정성에 의하여 기적적으로 소생완치되어 얼마전에 퇴원하였다.

지난해 11월말 전신 50%의 3도화상으로 병원에 실려온 환자의 생명은 경각에 다달았다.

병원에서는 긴급의사회의 회를 소집하고 후수상태에 있는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한 낮과 밤이 따르없는 긴장한 치료전투를 벌였다.

의료인들은 20여일만에 드디어 환자의 의식을 회복시켰으며 화상중독을 제거하고 피부이식에 들어갈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마련하였다.

수차례에 걸쳐 병원인들과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시

안의 각계층 사람들이 친형제가 되어 자기의 피와 살을 환자에게 바치었다.

피부이식수술후에도 환자는 여러차례 중태에 빠지곤 하였으나 이곳 의료인들과 우리 시대 인간들의 지극한 정성, 혈육의 정에 의하여 건강을 회복하고 대지를 활보할수 있게 되었다.

일터로 떠나는 노동자 류정에는 일원기간의 100%일은 온 나라가 하나의 대가정을 이룬 우리 사회의 참모습을 실생활로 체험한 감동깊은 날들이었다고 하면서 고마운 사회주의제도를 위해 한몸 다 바쳐갈 결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수필 른다른 새 학년도

얼마전 개학을 앞두고 고급중학교에 입학하게 된 아이들이 새 교과서를 한아름 안고 집에 왔다. 기뻐하는 듯이 고급중학교를 졸업한 딸과 대학에 다니는 조카가 저마끔 아이들이 가져온 새 교과서들을 펼쳐들었다. 아마도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제에 따라 달라진 교과서들이 호기심을 불러일으킨 모양이었다.

《교과서내용이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졌어. 야, 나도 이 교과서들로 다시 한번 공부해보았으면...》

《고급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교과서수준이 굉장히 높네.》

《우리아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받게 되는 첫 고급중학교 학생들이 아니야.》

아이들과 함께 교과서를 들여다보던 나에게는 으쓱해지는 아이들의 말이 무심히 들리지 않았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받게 될 첫 고급중학교 학생들이다.

두해전인 2012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회의에서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제로 전환할데 대한 법령을 채택한데 이어 올해 4월 1일부

러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강령을 집행하게 된 것이다.

교육내용과 방법을 혁신하는 것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떠메고나갈 인재육성에서 근본문제라 나신다. 그러자면 시대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내용과 형식을 갖춘 교과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과서는 학교교육사업의 기본수단인것 만큼 그 내용과 서술방법, 형식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

라 학교교육의 질과 효과가 달라지게 된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제 실시를 위한 교육강령은 자라나는 세 세대들의 나이와 심리적특성, 인식과정의 합법적성에 맞게 작성되었다고 한다. 이 교육강령에는 세계선진수준에 맞게 교육내용을 개선하는것과 함께 학생들의 능동적인 사고를 적극 개발시켜 자립성과 창의성을 높여주는 경우처주는 교수방법을 구현하는 문제 등이 다 밝혀져있다.

문득 취재처에서 만났던 평양시 대동강구역 룡라스 학교 2학년학생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몇몇 학생들만이 아닌 학습의 모든 학생들이 어른들도 하기 힘든 내자리



새 학년도 첫 수업이 시작되었다. - 평양제1중학교에서 - 본사기자 고영숙

해외동포들의 《정든 집》 - 평양호텔



이역땅에서 사는 해외동포들이 공화국을 방문할 때마다 즐겨찾는 《정든 집》이 있다.

평양의 중심부 대동강가에 자리잡고있는 평양호텔이다.

1961년 8월에 세워진 이 호텔은 공화국을 방문하는 각국의 외국인들과 해외동포들속에서 호평을 받고있다.

특히 재일동포들은 조국을 방문할 때마다 어김없이 숙소를 평양호텔로 정하곤 한다. 하여 사람들속에서는 《평양호텔이 재일동포들의 《정용호텔》로 불리우곤 한다.》

《재일동포조국방문단, 재일학생대표단, 공산국가단을 비롯하여 매해 수천명의 재일동포들이 우리 평양호텔에 들곤 합니다. 우리는 조국과 멀리 떨어진 이역땅에서도 민족의 넋을 지켜나가느라 그들이 자그마한 불편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가고있습니다.》

평양호텔 영점과 부원 한순범(55살)이 하는 말이다.

그의 말에 의하면 재일동포대표단들이 들어올 때마다 호텔의 종업원들 모두가 떨쳐나 환영사업을 진행하며 체류일정을 마치고 돌아

갈 때에는 자기들이 준비한 소박한 예술품연도 보여주곤 한다고 한다.

재일동포들은 자기들이 조국을 찾을 때마다 살뜰히 대해주고 보살펴주는 이곳 종업원들의 모습에서 조국인민들의 따뜻한 정과 친정집에 온듯 한 편안함 마음속 느끼곤 한다.

호텔의 사명에 맞게 침실과 식사실, 기념품매대, 커피점, 동식식사실, 상점, 편의봉사망들이 갖추어진 평양호텔에서 재일동포들이 즐겨찾는 곳은 2012년 새로 문을 연 전망대식당과 전망대커피점이다.

대동강의 풍치를 한눈에



바라볼수 있고 밤이면 야경도 즐길수 있는 전망대식당에서는 민족음식을 기본으로 세계 여러 나라의 토리들을 손님들의 구미에 맞게 봉사하고있다. 특히 김치와 토장국은 그들에게 조국의 향취를 한껏 느끼게 하여주는 인기음식으로 되고있다. 전망대커피점을 찾는 손님들은 《이곳의 커피맛은 매우 독특하고 좋다. 세계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커피를 맛보았지만 여기보다 못하다.》는 호평을 하고있다. 평양호텔을 자주 찾는 동포들은 이곳 종업원들과 한가죽

을 다해 활시위를 당겨야 한다는 것이다. 결보기에는 쉬워보이지만 보기만큼 만만치 않다. 활시위를 당겨보았더니 웬걸, 있는 힘껏 당기는데 팔이 부들부들 떨려왔다. 활소기를 자주 하면 자세를 바로잡아주기때문에 좋고 활시위를 당길 때 팔약근을 조여주기때문에 치질예방에도 좋다고 한다. 또 정신운동이다보니 치매방지에도 좋고 카로리소모가 커서 비만 예방에도 아주 좋은 운동이라고 한다.

최근 공화국의 곳곳마다에 공원, 유희장과 다양한 문화정서생활기들이 일떠서 로라스케트바람, 승마바람, 스키바람 등이 일고있다. 전자오락바람도 그중의 하나이다.

개선헌년공원, 톨라인민유원지에 있는 전자오락판들은 수많은 사람들로 흥성이고있다.

여기는 풍치수려한 톨라도에 위치한 전자오락관. 이곳에서 일하는 한해경봉사원은 어느때도 그렇지만 일요일, 명절날같은 휴식일에는 손님이 오라기재에 한번 앉아 보기 할지 않을 정도로 붐비다고 말한다.

전자오락관을 즐겨찾는 단 팔손님들은 역시 어린이들



웃음가득 넘쳐나는 톨라인민유원지 전자오락관

과 청소년학생들이다. 이곳에는 승용차경주, 판스키경주, 오토바이경주, 사냥경기 등 수십여종의 각종 전자오락기재들이 갖추어져있어 무엇이든 다 해보고싶어하고 용감하고 진취적이며 탐구심이 강한 어린이들과 청소년학생들의 호기심을 만족시켜주기에 충분하다.

그래서인지 어느 오라기재나 한번 마주앉으면 좀처럼 떨어질줄 모르는 이들이다. 운전대를 잡고 화면에서 깜찍한 차를 몰고 가면서 갖

가지 《보물》들을 먹여치우는 오락은 주로 유치원어린이들이 좋아한다. 차를 몰면서 마주는 《보물》들을 따먹는 재미만 여간이나여서 또 해도 성차하지 않는다.

승용차, 오토바이경주오라기재들앞에도 학생들이 모여있고 있어 흥성한다. 화면에서 나타나는 장애물들을 민첩하게 피해가며 앞선 승용차나 오토바이들을 따라잡아야 하는 오락은 보기와 달리 숙련이 필요하다. 그래서인지

운전대를 잡은 당사자의 이마에 빠질뻔한 땀이 내는데 옆에서들 더 속상한지 공연히 들쭉인다.

아이들에게는 뭐니뭐니 해도 총쏘기오락이 제일인듯싶다. 윈시림속에서의 총쏘기, 사냥경기와 관련한 오락기재들에서는 아이들이 편이어서 울리는 흥성이 그칠줄 모른다. 정황에 따라 권총, 자동보총, 기관총, 미사일 등을 바꾸어가며 나타나는 《적》, 비행기들과 잠수함, 짐승들을 쏘아맞힐 때의 통쾌함을



천연기능성건강식품 — 덱스트린칼슘

《만성적인 소화기장애로 오래동안 고생했는데 덱스트린칼슘을 복용한 지 며칠 안되어 소화기 장애가 잘 되고 먹은 것이 속 내려가는 것이 알리었다. 10년 묵은 체증이 푹 떨어졌었다.》

《어드름제거에 덱스트린칼슘이 좋다고 해서 써보았는데 신기할 정도로 깨끗이 없었습니다. 이전보다 얼굴피부가 윤택해지고 더 예뻐졌다고 사람들마다 말한다.》

최근 평양령봉부역회사에서 연구개발한 천연건강식품—덱스트린칼슘이 좋은 작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있다. 사용후 불과 2~3일만에 확실한 효과를 볼수 있다는것이 덱스트린칼슘의 우점이라며 누구나 입을 모으고있다.

덱스트린칼슘은 농마를 무기산(또는 효소)으로 부분분해하여 만든 덱스트린 칼슘아미노산, 유기산과의 혼합물이다. 덱스트린은 수용성식용성유로서 사람의 몸안에 들어가 위에서 소화흡수되는것이

아니라 대장에 도달하여 장내 유용성균인 비피두스균을 선택증식시키는 작용을 한다. 비피두스균이 증식되면 몸안에서 발암물질, 소화장애물질 등 유해물질의 생성이 억제되고 소화관의 면역력이 강화되면서 인체의 전반적인 생체방어기능이 개선된다. 이미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덱스트린을 A-1급, 특정보건식품으로 등록하고 누구나 늘 섭취하여야 할 가장 우수한 장수식품으로, 영양식품으로 널리 알려진 감자의

연구사들인 리형순, 정진녀를 비롯한 평양령봉부역회사의 연구사들은 건강장수식품으로 널리 알려진 감자의 농마를 생물공학방법으로 가공처리하고 여기에 천연생리활성성분들을 섞어 특색있는 기능성보건식품을 만들어냈다. 이번엔 개발된 덱스트린칼슘은 덱스트린, 단백질과 함께 칼슘, 망간, 코발트



등 30여가지 광물질을 비롯하여 인체에 유익한 생리활성물질들을 조화롭게 함유하고 있어 항산화, 항균 및 항비루스, 혈압안정, 독풀이, 항방사능 등의 약리작용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덱스트린칼슘을 정상적으로 먹으면 음식물의 소화흡수가 잘 될뿐 아니라 유기체의 전반적물질대사기능이 현저히 강화되며 골소송증, 식물신경질소중, 심장정지환, 동맥경화, 관절염, 소대장염, 비만, 알레르기, 기관지천식, 소화방지, 방사선피해후유증을 비롯한 질병들의 치료에도 큰 효과를 나타낸다.

이밖에 정신적 및 육체적 피로를 회복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며 어린이들의 키크기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 천연기능성건강식품—덱스트린칼슘에 대한 수요는 날로 높아가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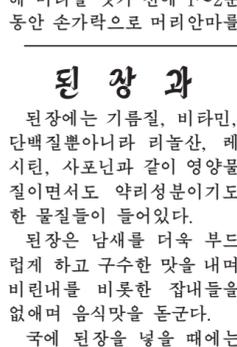
우 리

사람들은 사업과 생활에서 우리라는 말을 흔히 쓰고있다. 나와 너를 가리키는 좁은 범위에서부터 집단에 이르기까지 우리 집, 우리 아이, 우리 직장, 우리 사회, 우리 제도 등 우리라는 말의 쓰임은 아주 다양하다.

우리라는 말은 사적소유가 생겨난 먼 옛날부터 나왔다고 볼수 있는데 《울라리》의 동의어인 《울》에서 파

생되었다. 울라리는 집이나 마당, 터밭 같은것의 경계에 나무 또는 돌, 짚으로 둘러막아 자기의 소유임을 표시하는것이다.

이 울라리의 《울》이 변화되어 《우리》로 되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우리라는 말은 자기보다 집단을 표시하는데 많이 쓰인다.



그 무엇에 비기라. 재미있는것은 《전자오락은 아이들이나 하는것》이라며 집값을 빼던 어른들이 언제 그랬든가싶이 흥미있는 전자오락의 세계에 너도나도 뛰어드는것이다. 처음에는 《한번만...》하던 사람들이 《허, 생각과는 다른데...》, 《정말 재미있다.》며 3D비행전, 격술, 미래의 전쟁과 같은 전자오락기재들에 편이어서 옮겨다니는 경우가 허다하다.

전자오락관에서 만난 사람들의 목소리, 평양시 중구역 창전초학교 3학년 3반 윤성순학생은 《방금 판스키경주오락을 하면서 얼마전 마시 스키야영의 나날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때 익힌 스키라기씨를 판스키경주오락을 하면서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고 말한다.

평양강철공장 노동자 박남철은 《오늘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나도 경마오락을 실컷 해보았다. 꼭 미림승마구락부에 온것만 같은 심정이다. 매일이라도 오고싶다.》며 웃었다. 즐거운 탄성과 어울리는 흥성하는 소리들과 때때로 웃음소리로 시간가는줄 모르는 전자오락관이다.

본사기자 홍범식

김일성방송대학 교무부에서 일립니다

김일성방송대학 주제103(2014)~주제105(2016)학년도 제48기 개학식을 4월 14일 평양에서 진행하며 방송강의는 4월 16일부터 합니다.

김일성방송대학에서는 민족최대의 명절인 태양절에 즈음하여 기념특강을 진행합니다.

강의제목: 1) 만경대가문의 송고한 가풍
2)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언제나 남녘동포들에게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신 영원한 민족의 어버이이다

강의날자: 1) 주제103(2014)년 4월 16일
2) 주제103(2014)년 4월 16일

강의시간: 1) 1강의
2) 1강의

홈페이지주소: <http://www.ourmation-school.com>
전자우편주소(E-mail): schoolmanager@silibank.com
청강생 여러분들이 주의깊게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족의 사랑-평양민속공원을 찾아서 공민왕릉의 무관상과 문관상

평양민속공원에는 개성시 해선리에 위치하고있는 고려 31대왕인 공민왕의 무덤에 있는 무관조각과 문관조각의 모형도 있다.

무관조각과 문관조각은 신새김을 위주로 하면서도 야외기념물로서의 립체감을 잘 살리고있다.

특히 문인과 무인으로서의 직업적특성은 물론 젊은이와 늙은이의 성격상특징까지도 잘 나타내고있다.

인물조각들의 높이는 대체로 2.3m로부터 2.5m로서 야외조각으로서의 그리 크지 않으나 그 형상에서 풍기는 웅장성과 탄력있는 기백 등은 매우 개성적으로 처리되었다.

이 조각들은 야외공간속에 놓여지는 기념조각으로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우선 덩어리를 큼직큼직하게 잡고 동작을 단순화함으로써 조형률의 선명성을 보장하였다. 인물조각가운데서도 무관조각이 좀 더 잘 된 조각이다.

체구에 비해서 다소 커진 얼굴과

발은 목, 얼마간 굽어진 몸집과 약간 길어진 상반신의 처리 그리고 팔팔을 비롯한 중요한 골격마디들의 강조 및 무뚝뚝한 표정, 온 몸을 완전히 무장한 갑옷의 치밀한 세부묘사 등은 무관의 엄격한 성격을 강조하고있다. 한편 무관의 성격형상과 대조되는 문관조각은 약간 호리호리한 몸매에 적당히 드러낸 목, 길게 흘러내린 옷주름과 부드러운 얼굴표정 등의 표현이 예지로우며 보여준다.

또한 인물조각의 특성인 처리의 간결성, 명확한 표현성 및 웅장성을 잘 살리

고있다. 이와 같이 공민왕릉의 인물조각은 이 조각제작에 참가한 조각가들과 기술자들의 창조적이고 뛰어난 예술적재능과 능숙한 돌조각술에 의하여 역사적으로 내려오면서 하나의 도식으로 되어있던 무덤조각형상의 틀을 마스고 새로운 형상을 창조하였다.

공민왕릉의 무관상과 문관상은 지금까지 전해져오는 돌사람조각가운데서 가장 우수한것의 하나로서 우리 선조들의 뛰어난 슬기와 재능을 엿볼수 있게 한다.

본사기자 고영숙



산

《리정암이 제가 부사를 해먹은 연안성에 가서 의병을 일으켰는데 어디 실컷 해보라지, 몇달이나 견디니. 내 술한 재물을 가지고있으면서도 그 잘난 서울놈들의 밑에서 굶신대며 이 잘난 벽란도의 도승질이 해먹을줄 알았어? 난 왜인을 업고서라도 명명 큰소리 치고 항세하며 량반답게 잘 살아볼테다.》

《여보, 왜군이 참말 이기긴 이길걸 가지고 이러는것이 아니야?》
《요런 방정맞은 소리. 건 하늘의 뜻이야. 라고난 싸움군이 일본사무라이들이는데 그것들이 20여만의 대군으로 수북병진해와. 그런데 관군은 고작 2만이나 되겠는지. 두고보라구. 명년 이맘때면 명나라의 도움 얻경(배이징)까지도 함락되지 않나.》

《그래도 양파동, 풍류동, 한우물마을 백성들은 싸운다고 저 개성으로 밀려가던데?》

당

《젊은 소대거리 옷다 꾸레미 러질라. 그 무식한 가난뱅이들이 뭘루 싸우네? 이제 제발로 기여나오지 않나 보라.》
《그렇긴 한데... 량군님은 언제 어떻게 개성에 다시 들어가실라유?》
《그런진 함부로 묻는게 아니야. 하여튼 서울에 풍신수길의 부고(봉행집정관)인 석전삼성이 들어왔는데 내 그 량반과 통할런 줄을 쥐고있어. 그러니 개성은 내것이나 마찬가지로지던.》

《아유, 그럼 나도 이 사실노릇을 끝장낼수 있을가?》
《또또, 어련히... 입잔 이쁜이년을 잘 구슬러서 창우를 쫓아가지 않게 해야 해.》
이쁜은 머리카락이 쭈뼛 서고 소름이 끼쳤다.
《고년은 왜?》
백제는 갑자기 양갈진 소리를 쳤다.
《잇! 이건 밤말도 쥐가

화 (2)

글 전철호, 그림 김윤일
듣는다는걸 몰라?
《헐, 낫잖 고년 람을 내는거! 난 고년이 당신 몸종을 사는데 싫어. 고년이 꼬리치는걸 보면 락 가랑머리 찢어죽고싶어.》
《차차, 이진 상스러운 말을 랑랑! 이와 큰 고길 낚으려면 미끼가 커야 한다는 걸 몰라? 한송이 꽃처럼 어여쁜 이쁜이 착 앞세워야 왜장이 날 크게 신임하게 하니까.》
《아유, 그러게! 그럼 고년을 노리개로?》
《취! 아무래도 고 입때문에 큰일 당치겠다.》
제가 섬기던 주인놈의 배속을 우연찮게 밀바다까지 들여다본 이쁜은 한동안 명칭해 서있었다.
그날 밤 이쁜은 뜬눈으로 새물을 맞았다. 이쁜은 그 다음날도 또 그 다음날도 두근거리는 가슴을 부여안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해보았다.
이쁜은 드디어 독한 마음을 먹었다. 고려쳐서 설죽

화처럼 전장에서 칼을 휘둘러 외적을 무찌르지는 못해도 이 역적놈의 흉계를 몰래 알아내어 고향향을 지키는데 다소나마 기여하리라. 물론이 길이 죽음까지 각오해야만 하는 길인줄은 안다. 그렇다고 이 결심은 창우한테도 말해줄수 없다.
철썩-철썩-
이쁜은 하늘을 쳐다보았다. 총총했던 별들이 깜빡이며 하나, 둘, 사라지고있었다.
《이쁜아- 이쁜아-》
어둠속에서 름뚱 한 목소리의 입자가 나루배를 바짝 선창기슭에 들이대며 거둬소리쳤다.
보나마나 천뜻 한 목소리의 입자는 이 벽란나루에 혼자 남은 배사공할아버지다. 이 나루에다 래를 물었다는 할아버지는 굶었음직에 열병으로 처와 아이들을 할 날한시에 다 잃었다는데 오늘까지 한뼘 황백치의 밑에서 나루배를 끈다. 언제 배에 올랐는지 창우가 《할아버지! 제가 찾아오겠소이다.》하고 소리치며 배에 서 뛰어내렸다. 이쁜은 슬며시 자리에서 일어나 달려오는 검은 형체를 향해 소리쳤다.

《나 여기 있어.》
《오래 기다렸지? 어서 가자.》
어느새 창우는 달리와 이쁜의 말을 잡아끌었다. 이쁜은 창우에게 이끌려 배로 다가갔다.
《인젠 됐다. 이쁜아, 창우와 함께 어서 가자꾸나.》
창우에 뛰어올라 이쁜에게 손을 내밀었다.
《이쁜아, 애 그러구만 썼느냐? 주인놈이 널 찾기에 창우를 따라가야지.》
이쁜은 배에 오르려는척 하다가 황백치를 밟았다.
《아니 이쁜아, 이진 뭐냐?》
《할아버지, 전 갈수 없

리 가 공

죽이 거의 끓었을 때 풀어놓고 한소끔 끓어오르면 골 먹어야 재맛이 난다.
된장을 나물로리나 고기, 물고기료리에 적절하게 리용하면 원자재의 맛과 영양가치를 훨씬 높이므로 식생활에 다양하게 리용하는것이 좋다.
본사기자

창우! 그럼 잘가-》
이쁜은 별안간 책 돌아서 어둠속으로 내밀었다. 뒤에 서는 창우와 사공로인의 부름소리가 멎을 줄 몰랐다. 이쁜은 마음이 약해질가

바 더 힘껏 내달렸다. 단숨에 감나무들이 늘어진 선창가의 길에 예뻐 산신당같은 황백치의 첩네 집으로 뛰어갔다. ...
X
벽란도의 선창가에 우뚝한 느리나무그늘에서는 튼튼한 솔판이 벌여지고있었다. 개성에 주둔한 왜군의 장수인 사이토는 적철우에서 노릇노릇하게 익어가는 예송아지고기점을 저가락에 꿰어 들고서 백동화로는 그 무슨 장교로 아는지 다른 손으로 두들기며 빈죽을 울리는 소리를 냈다.
《오, 황상! 가을바람이 솔솔 부는 이 벽란도나 경치가 좋다.》
황백치는 왜인마냥 머리를 감작거리며 대꾸했다.
《에에, 경치야 두말하면 잔소리일쎈. 고려편 여기로 온 세상이 구름처럼 밀려왔었다고 하오이다. 더우기나 이런 날에 술을 마시면서 시를 읊조리다만.》
《아아, 황상!...》
보통기인데 어찌나도 몸이 가로 퍼졌는지 흉사 절구통을 눌러놓은듯 한 왜장은 눈알을 부러리며 돼지머리는 소리를 질렀다.
《어서 드시와요. 장수들 한테 이 애송아지가 제일이라는데...》
《좋은것이다.》
사이토의 메기입이 귀밀로 돌아갔다.
백제는 단숨에 술잔을 비우는 사이토의 어깨에 하얀 손을 척 걸치고 저만치 멀어져서 승어회를 치느라 맘을 풀리는 이쁜에게 소리쳤다.

《내가 말하자건 그게 아니다. 이 벽란도가 연안성에 도사린 리정암의 목을 조이는 울가미나 적중하다는 그 소리다. 해주를 가로라고앉은 우리 3진의 구로 나가마사(후철장성)가 힘겹게 연안성과 싸울 때 나 사이토는 감쪽같이 리정암의 뒤를 치고 그자의 목을 따자는거다.》
황백치는 왜장이라면 목소리부러 먹을 따는듯 커야 하는부다 하고 생각하며 《에에, 거야 어부가 있겠소이까.》하고 발맞추었다. 사이토의 곁에 착 붙어서 술시중을 드는 백제는 방금 쥐를 잡아먹은 고양이 주둥이같이 새빨간 입술을 뽀족 내밀고 술잔을 받쳐들었다.
《어서 드시와요. 장수들 한테 이 애송아지가 제일이라는데...》
《좋은것이다.》
사이토의 메기입이 귀밀로 돌아갔다.
백제는 단숨에 술잔을 비우는 사이토의 어깨에 하얀 손을 척 걸치고 저만치 멀어져서 승어회를 치느라 맘을 풀리는 이쁜에게 소리쳤다.

